



치의신보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dailydental.co.kr

제2763호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내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복지부, 불소도포·치석제거·구강보건교육
패키지로 연 2회 제공 계획 전정심서 밝혀

정부가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내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이하 건정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포함돼 진행될 예정이다.

치과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해서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치석제거 시 가산 적용될 것으로 전정심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확정될 방침이다. 치협은 그동안 장애인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정부에 적극 호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

한 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고 힘써왔다. 한편 이날 전정심 보고에서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치석제거 시 가산 적용을 통해 11만1000 원 수가(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과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이 함께 공조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도 현실에 맞게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사업이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인터뷰 정태성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더 많은 선·후배 치과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성공정착 치의 위상 높일 터

처음 낮은 수가 제안에 자존심 상해 무료진료 계획도 치협 적극 중재 장애인 치과가치 회복 "매우 고맙고 기뻐"

내년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태성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 정착 및 전국 확산의 가능성성을 염두

에 두고 있어, 많은 치과의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관련 수가도 현실에 맞게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돼,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치과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힘써온 정 회장은 "장애인 치과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 가량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치의 사전 교육부터 시작해,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등 극복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라고 장애인 치과 진료 현실의 어려움을 밝혔다.

〈3면에 계속〉

고성능 (구) 물리치료장비 보상판매 실시

턱관절 물리치료 시스템

턱관절 물리치료 단순, 전기, 복합자극요법, 분사신장요법

LASER PHL-15
(퍼팩트 힐링 레이저 & 적외선)
• 보험 U2381(가·단순자극요법)
• 보험 U2383(다·복합자극요법)

SONO (초음파)
• 보험 U2381 (가·단순자극요법)

TENS
(저주파자극기)
• 보험 U2382 (나·전기자극요법)

냉각스프레이
• 보험 MX032(분사신장요법)
★ 인증기관 없이 모든 치과 보험청구 가능

환자상담용 TMJ 모형

MU (주)메디컬유나이티드

www.medicalunited.co.kr

제품구입 및 세미나 문의 02-3281-0102



DENTAL BEAN Red

Course Directors
전인성 원장, 김세웅 원장

총10회
2020년 2월 1일(토)~4월 12일(일)
토요일 15:00~20:00 / 일요일 9:00~18:00

임플란트 수술 파트
전인성 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졸업(치의학박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교수
미국하버드치과대학 교환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자문교수
현 서울H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보철 파트
김세웅 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가천대학교 길병원 보철과 수련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인천지부 총무
가천길대학 치위생과 보철학 임상 교수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철과 임상교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보철과 과장
현 22세기서울치과병원 원장

등록 안내

[수강료] 270만원
연수회 기간 중 덴탈빈온라인 해당코스 무료수강
공보의, 군의관, 수련의 수강료 30% 할인

[문의] 070-4259-5586 / dentalbean@naver.com

[신청] www.dentalbean.com → Seminar

[정원] 선착순 20명 마감 (결제완료 순)

[장소]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701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출구)
주차지원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Dental Bean

www.dentalbean.com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

◆ 수술 – 전인성 원장

1회차 2월 1일(토) / 2회차 2월 2일(일)

- 임플란트 환자 상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
- 치료계획의 수립 : 해부학적 고려 및 부위별 임플란트의 위치 선정과 갯수
- 절개와 골의 상황별 드릴링 가이드라인 및 초기고정의 의미
- 임플란트 수술과 전신질환의 고찰
- 2차수술과 그 적용

3회차 2월 15일(토) / 4회차 2월 16일(일)

- 봉합의 모든 것 : 실패하지 않는 골이식을 위한 판막과 차폐막의 안정화
- 발치후 즉시 식립 : Part 1 (Self contained defect)
- 발치후 즉시 식립 : Part 2(Partial to Non contained defect)

5회차 2월 29일(토) / 6회차 3월 1일(일)

-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한 상악전치부 드릴링의 모든 것
- Flapless surgery : A to Z
- Ridge split technique의 분류와 임상의 적용

◆ 보철 – 김세웅 원장

임상 및 기공 동영상과 함께하는 임플란트 보철 과정의 이해

7회차 3월 21일(토) / 8회차 3월 22일(일)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과정의 이해

- 임플란트 보철과 인상 채득을 위한 기본 개념
- 다양한 임상 상황에 적절한 인상 채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 어떻게 하면 인상 채득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어떤 종류의 인상재를 선택하시나요?

Hands-on : Impression taking on the clear model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임상적인 guideline I

- 보철물을 위한 수직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수복을 위한 임상적인 guideline
- Clinical and laboratory protocols for making splinted cement-retained type restoration
- Separated transfer key의 임상적인 효용성

9회차 4월 11일(토) / 10회차 4월 12일(일)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임상적인 guideline II

- 어떠한 경우에 customized abutment를 선택해야 하나요?
- Clinical and laboratory protocols for making splinted combination type restoration(SCRP)
- When and how to make a segmented combination and cement-retained prosthesis
- Tapered internal connection implant에서 one-piece type abutment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Hands-on : 실습 모델에서 homework로 제작한 다양한 보철물을 clear model에 장착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임상적인 guideline III

- 최종 보철물 장착 과정에서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bite 채득 방법
- 구치부 협설적 폭경이 부족한 경우 보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
- 일정 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을 장착해야 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된 임상적인 protocol
-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

후원

 DENTIS

치아보험 440만 건 가입 시대

2년 반 만 1.5배 성장…올해부터 증가세 ↓
가입자 40대가 ‘최다’ 중복 가입자 늘어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보험 가입이 44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치아보험, 누가 얼마나 가입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16년 12월 297만 건에서 올 6월 현재 444만 건으로 2년 6개월 만에 49.2%(147만건)나 늘었다.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치아보장특약을 보유한 개인까지 포함할 경우 치아보험 또는 치아보장특약 가입건수는 8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632만 건에 비해 37.6% 증가한 수치다.

2개 사 이상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개인은 전체 치아보험 가입자의 5% 수준으로 이들은 1건 가입자에 비해 치과치료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치아보험의 경우 일반 실손 의료비 보험과 달리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치아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상반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치아보험 취급 보험사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은 40대 수령은 50대 ‘최다’

치아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40대(24.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1.3%), 30대(20.1%), 20대(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치료 보험금을 주로 수령하는 연령대는 50대(2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2.8%), 30대(19.0%) 등이었다. 또 월평균 치아보험료를 연령대 별로 비교해 보면 50대는 월 6만원, 40



대·60대 이상 월 5만원, 30대 월 3.9만 원 순이었다.

10대에서 5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치아보험료가 높아지는데 60대 이상의 경우 평균 치아보험료가 월 5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치과 치료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고액 치아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치아보험의 전망은 어떨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치아보험 가입률이 10대 이하에서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18.1%가 향후 치아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 등이 그 근거다.

아울러 치아보험의 경우 30~50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한 틈새 상품인 만큼 향후에도 인슈어테크(InsurTech)와의 결합, 판매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계속 진화를 거듭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사회와 치과계 발전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도 꼭 필요

<1면에 이어 계속>

정 회장은 또 “이처럼 장애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동료 치과의사들의 동참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전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태성 회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 시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와 치과계 발전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는 20여 년 지속된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의 숙원이었다”며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그렇기에 이번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은 정태성 회장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다.

정 회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배종현 부산지부 회장,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철수 협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가 개선은 그동안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에 앞장서 온 치과의사들에 대한 수고와 가치를 인정받은 것과 같다. 시범사업 초기, 매우 낮게 책정된 수가로 인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무료 참여까지 고려할 만큼 실망이 커졌다. 하지만 김철수 협회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향후 만족스러운 수가가 책정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고맙고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민재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스마트폰으로 복잡한 DSLR 카메라 촬영을 한번에 -

학생임상교육 사진 관리 편리해진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과대학 회성호·이하 연세치대(이하 연세대)는 원내생 임상교육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세치대가 지난 1일 원내생 진료실에 임상시킨 관리프로 그램 ‘스마트파이’를 도입했다. 스마트파이는 IoT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학생에게 스마트파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내생의 임상사진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연세치대는 IoT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학생에게 스마트파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내생의 임상사진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학생에게 스마트파이 시스템은 원내생의 임상사진을 관리하는 환자별로 분류되며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DSLR로 임상사진을 활용한 후 카메라의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저작하는 수동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원내생 진료진의 특성상 많거나 숨겨진 치료를



 ZIMMER BIOMET
Your progress. Our promise.™

Puros® Allograft

Mineralized Bone Allograft



Since 1971

세계판매 1위
동종골이식재

Made in USA

48년 역사와 문헌으로 입증된 가장 빠르고 견고한 골형성 !

논문으로 입증된 상악동에서의 골형성 능력

- 이종골보다 **127%** 더 많은 Vital Bone 생성 ^{2,3}
- 동결건조골보다 **23.7%** 더 많은 Vital Bone 생성 ¹
- 합성골보다 **16.9%** 더 많은 Vital Bone 생성 ²

- 5년 후 이식재 안정성에 대한 임상 및 방사선 추적 조사 ⁶

- 술후 11개월 후에 예상되는 골이식재의 **총량** 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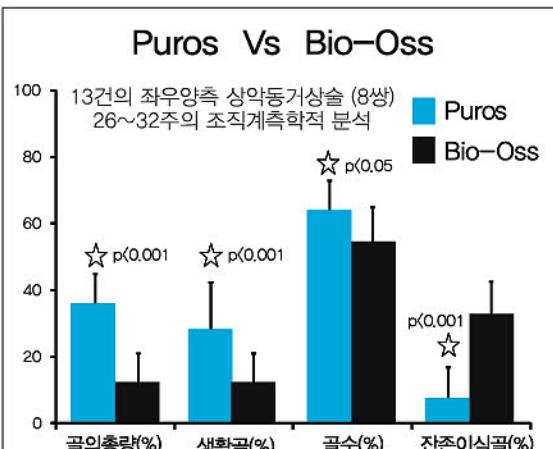
- 이종골과 비교하여 **56%** 이상이 이식재에서 골로 바뀐다 ⁴



상악동에서
최대 127% 더 많은
Vital Bone
생성 !

상악동거상술에 사용된 Puros®와 Bio-Oss의
26주~32주 경과후 조직형태학적 관찰 ³

Stuart J. Froum, DDS / Stephen S. Wallace, DDS / Nicolas Elian, DDS / Sang Choon Cho, DDS / Dennis P. Tarnow, DDS



	평균 Vital Bone	평균 잔존이식재
Puros	28.25%	7.65%
Bio-Oss	12.44%	33%

결론: 이번 연구결과로 Puros® Allograft가 Bio-Oss와 비교해서 더 많은 양의 Vital Bone이 생성되었으며 더 빠르게 골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Monje et al,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17) 32:121–127
2. Soardi CM et al, Clin Oral Implants Res. (2013) 21:576:85
3. Froum SJ et al, Int J Periodont Rest. (2006) 26:543–51
4. Noumbissi SS, et al, J Oral Implantol. (2005) 31:171–9:Noumbissi SS, Lozada JL, Boyne PJ, et al.
5. Soardi CM et al,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16) 31:352–358
6. Annibali S et al, Implant Dent. (2011) 20:445–54

장영준 전 부회장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실천하는

BTS 성공비결 접목 '발로뛰고, 투명하며, 소통 약속'

문제는 치과경영… "치협 통해 활로 제공하겠다"

장영준 전 치협 부회장이 제31대 치협 협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 전 부회장이 지난 20일 교대역 인근에서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경영의 어려움에 신음하는 3만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는 '장영준의 BTS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장 전 부회장은 "그동안 치과계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저려 오는 아픔을 느꼈다. 치과계 내부적으로 과잉·출혈경쟁, 의료기사 업무범위 분쟁,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은 답보상태고, 1인1개소법 합헌과 전문의 다수개방에 따른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처방 전만을 치켜들고 있다. 또 치과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외부로 가져간 결과 피 같은 회원들의 회비가 소송 비로 무의미하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직접 나서 치과계 변화를 이끌겠다. 체어 2대의 작은 치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과의사의 삶에 대한 많은 고민, 또 많은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계의 변화를 리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성공비결을 치협 회무에 적용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장영준 전 부회장이 약속한 BTS의 ▲B는 '발로 뛰는 치협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쉬엄쉬엄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지 않고, 민생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경청하는 치협이 되겠다는 의미다. 장 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회, 유관단체, 시민단체, 지부, 회원들을 향해 쉬지

않고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T는 '투명하고 통합하는 치협이 되겠습니다'란 뜻으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하며, 계파별로 나뉘는 치협이 아닌, 통합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S는 '소통하는 치협이 되겠습니다'란 의미로 작은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족한 곳을 채워주고,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들며, 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치과계 외연 확대를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이다.

장 전 부회장은 지난 2002년 치협 기획 이사를 시작으로 흥보이사와 1인1개소 의료법사수특위 위원장,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29대 치협 집행부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회무 경험을 쌓았다.

장 전 부회장은 치협의 첫 흥보이사로 일하며 언론계와 폭넓게 관계를 형성한 마당발로 대외홍보활동에 정통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와 함께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 18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과 수십 번 만나며 직선제 시행에 기여한 추진력, 1인1개소 의료법사수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현직 회장과 뜻을 달리하며 현장 시위에 적극 나선 소신 등을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장 전 부회장은 현 치과계의 문제를 수입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부당 청구, 과잉진료 의혹 등으로 치과의사들을 옥죄고, 감염관리 문제와 수많은 행정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진단했다. 여기 더해 전·현직 집행부가 통합하고 하나로 움



치협 31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장영준 전 치협 부회장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직이기보다 편을 가르고 나누어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며 치과계 전체가 법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화와 끈기 있는 소통으로 조화롭게 협력하는데 장점이 있는 자신만이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집행부 간 이전투구 형식의 소송 전의 매듭을 풀어내고, 치과계 내부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외연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장 전 부회장은 "지금은 하나로 힘을 모을 때다. 투쟁보다는 대화와 소통, 설득과 조화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 여성 일꾼을 적극 발굴해 기회를 주고, 계파

별 나눠 갖기가 아니라 과감한 인적 혁신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치과계가 돼야 한다"며 "발로 뛰고, 투명하고, 소통하며 치과경제를 잘 쟁기는, 치과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크게 키워나갈 협회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장영준은 준비가 돼 있다. 꼭 한번 기회를 주고 성원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장 전 부회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바이스 구성과 관련 "네 사람이 준비돼 있다. 세 사람은 지부 내지 협회에서 현직에 있는 임원이며, 한 사람은 협회 밖에서 일하고 있다. 바이스난인 이번 선거에 능력 있는 분들로 이미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간호조무사 시험 치과문항 추가를

전체 문제 중 2% 취업시 영향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시 마주치는 업무 진입장벽을 고려해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치과 문항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흥옥녀·이하 간무협) 및 윤소하 국회 의원(정의당) 주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회좌담회에 참석한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협이 치과위

생사, 간호조무사 수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본 결과,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치과계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치과 관련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전국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10분의 1이상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치과병·의원 취업시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무사시험 출제 빈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통증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치료요법

인체공명파 적외선조사기
알라딘·H®

HUMAN RESONANCE WAVE **Aladdin·H®**

수술 [Implant & Numbness] 후,
통증완화, 염증소실,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증진, 조직재생 조기 치유 촉진
우수한 효과를 직접 경험 하십시오!!

www.aladdin-h.com



[DS-999 · TR-1100 의료기기제조업 허가번호 제343호]

회전근 개 봉합술 후
조기 통증 및
관절 가동범위에 대한
적외선조사기 Aladdin-H®
효과의 탐색임상시험 확인과
확증 임상시험 실시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책임연구자 : 오 주 한 교수

적외선조사기 Aladdin-H®는 의사 처방에 의해 자가(自家)에서 치료하는 탐색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확증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영업본부 &
부설연구소 | 서울송파구 송이로 32길 28 2층(문정동, 태림빌딩)
TEL. 02)3401-6432 / 010-7488-5515

태림메디칼

북미를 휩쓴 Osseodensification Bur 세계특허의 국내제품 출시!!!

HaeNaem Bur Kit

- 쉽고 안전한 Maxillary Sinus Autografting
- 골 치밀화로 인한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 증가
- 좁은 치조골에 탁월한 Ridge Expansion 효과
- 골 확장용/상악동 거상용 2 type의 드릴구성: 시술장점극대화



- 뼈 추가 없이 자가본으로 3mm Sinus Lift되었음



- 뼈 추가 없이 Crestal Approach로 5mm Sinus Lift되었음



- 골다공증 환자 드릴링만으로 골질 개선



Osseodensification을 위한 해냅버 KIT 세미나

연자소개



우동협 원장

부산대 치과대학 졸업
부산대 치의학 박사
미국임플란트 학회 인정의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
IBS임플란트 연자
덴티움 임플란트 패널티
부산 보스톤치과 개업 10년차

세미나 소개

*40분 선착순 모집

- 날짜: 2020.02.01(토요일)
- 시간: 14:00~16:00(2시간)
- 장소: 부산역 KTX회의실 5층 중회의실 512호
- 내용: 1. 한번에 끝내는 크리스탈 상악동 거상과 자가골이식
2. 골치밀화로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조기로딩
3. 좁은 치조골에 시행하는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
- 등록담당자: 박희란 Tel.050.2007.2875

노인환자 본인부담 크게 줄어 치과문턱 낮췄다

제30대 집행부 임기가 오는 4월 마무리 되는 가운데 지난 3년여 동안 집행부는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 가운데 주요 성과들을 중심으로 되짚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담는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 ① 구강정책과 12년만에 재설치
- ②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진행
- ③ 1인1개소법 현재 합헌판결
- ④ 의료광고심의 부활…치과가격표시 제한
- ⑤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⑥ 세무, 회계정책 적극 추진
- ⑦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 ⑧ 치과건보수가 최고수가 계약
- ⑨ 김철수 협회장 인터뷰
- ⑩ 미 수련자 1911명 통합치과 전문의 취득
- ⑪ e홍보사업 론칭 국민·회원 홍보강화
- ⑫ APDC 아·태 서울총회 성공 개최
- ⑬ 카드수수료율 인하 1인당 5백만원 절감
- ⑭ 윤리포럼 설립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 ⑮ 치과위생사 입학 정원 210명 증원
- ⑯ 치의학연구원 설립 적극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보장성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급여비는 약 4150억원, 임플란트 급여비는 약 44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노인틀니 약 2850억원, 임플란트 약 3770억원에 비해 노인틀니는 46%, 임플란트는 19% 증가한 수치로 본인부담금이 기준 50%에서 30%로 인하된 효과로 분석된다. 2019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계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 급여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득 없는 노인들에 큰 도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의 치과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이용률이 높아졌고 개원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공약이 가시화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치협 30대 집행부 선거와 19대 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이후 더불어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도 대선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초기 3개월 여간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30%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본인부담금 인하로 노인들의 치과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고 실제 진료비용을 증가로 이어져 개원가에 많은 보탬이 됐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인하되면서 그동안 지자체별로 진행돼 오던 무료틀니사업이 대폭 축소나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향후 해당 사업이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구순구개열 환자, 구강 암수술 환자, 무치약 환자 등 특수한 경우의 환자들에게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연령 및 개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치과 의료 접근성 개선 개원가 실질 도움 향후 지속적인 연령·개수 확대 힘 모아야

인하는 2017년 11월(노인틀니), 2018년 7월(임플란트) 순차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 임플란트 진료비의 경우 사실상 6개월 치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면서 65세 이상 노인틀니의 경우 1인당 55~66만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33~40만원으로 낮아져 비용이 최대 27만원 줄었다.

임플란트는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비용이 약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됐다.

본인부담률 인하 덕에 경제적인 부담

철수 협회장이 치과계 정책현안을 반영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선 캠프에 치과 관련 정책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19대 대선 정책 반영 ‘골든타임’ 적중

김철수 협회장은 노인들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것 각 대선 캠프에 제안했고 당시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캠프에서 해당 정책을 채택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됨에 따라 2018년 치과의원에 지급된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비(공단부담금)가 전년대비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2000억원 증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30대 집행부 취임 당시 5대 주요 정책 공약과제 중 하나로 2017년 5월 집행부 공식 출범 직후 3개월여 만에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노인틀니

노후대비 수익형 렌탈하우스·전원주택



- 연수익 5000만원
- 노후대비 수익사업 [수익률 10~15%]
- 태양광 설치 [40% 절감]
- 지주직접 [선시공 후분양]
- 1~2년치 임대료 일시불(미군 주택과)



서울에서 1시간! 도심과 가까운 전원주택단지 거주용 전원주택·주말주택

평택·아산은 미군부대 이전과 산업단지 개발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평택 미군기지는 동북아 최대 규모로서 SOFA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안정적 임대 수요를 예상한다. 2021년까지 미군 4만 2천여 명과 관련 종사자 8만여 명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 이로 인해 미군을 상대로 하는 렌탈 하우스가 고수익 임대사업으로 밝은 전망이다. 렌탈하우스 중 최고 임대 수익률을 자랑하는 스카이빌리지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고, 미군기지와는 9~10분 거리에 있다.

이곳의 특징은 주택의 임대·매매·운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사 대비 분양가 거품이 없고, 태양광 설치로 냉난방비 및 관리비 40%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자랑이다. 외국인의 주거문화에 맞는 모던한 독채형 주택으로 전 세대 모두 납향 배치이다. 건물 외관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건물론이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또한 탄탄하다. 테라스와 정원이 있으며 2층의 복층 구조이다.

내부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소파 등 호텔 수준의 편의 시설로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보안시설 또한 초고속통신망, 외부인 출입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미군 주택과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적 기준을 반영 하였다. 주택 구입 시 연수익의 약 4만 2천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 수익률은 10~15%가 예상된다.

렌탈하우스는 미군 주택관리과와 계약을 함으로써 미군 개인이 월세를 지불하는 게 아니기에 세입자 관리가 체계적이며 수익성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1~2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매력이다. 미군 렌탈 뿐만 아니라 거주용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에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우징포유 1522-2074

* 주말에도 예약, 방문상담 환영합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선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십시오



[Orthophos SL 3D]

Image

DCS(Direct Conversion Sensor)의
선명한 이미지와 저선량 촬영모드로
최소한의 블러링

Quality

Made in Germany의 견고한 내구성과
5년 warranty(센서, 투브 헤드) 제공으로
안정적인 장기 사용 가능

Integrated solution

CAD/CAM 시스템과의 통합 솔루션으로
편리한 Implant Surgical guide planning이
가능한 CEREC guide 2 system 제공



제품 문의) 02.2008.7685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의해주세요.

경험해 볼수록 느껴지는 가치,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의 진료 파트너

INTEGO

Ergonomic Design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으로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편안한 진료 공간 제공

Comfort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진료 환경 제공

Quality

안정적인 A/S 관리와 서비스로
새 제품과 같은 퀄리티 유지



제품 문의) 02.2008.7685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의해주세요.

THE DENTAL
SOLUTIONS
COMPANY™

 Dentsply
Sirona

치과 세무회계 경영마인드 재정립 초석 다져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게 회무의 본령이라고 봤을 때 세무, 회계는 절박한 민심의 척도였다.

이를 위해 30대 집행부는 치과 세무 대책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 개원가의 세무, 회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 판을 짜는 데 주력했다.

우선 개인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을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도입, 강화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세무 정책을 바로잡는 대안을 마련, 세무 당

첫 강연을 시작으로, 8월 31일 부산, 9월 22일 대구, 10월 27일 충남, 11월 24일 광주 등에서 찾아가는 지방 순회강연을 진행,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11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강연 역시 총 250여명이 참여하는 '흥행 대박'을 이어갔다.

최근 가장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한 '세무·회계 동영상 시리즈'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경조사비 ▲사업자의 종류 ▲고용지원금 ▲4대 보험료 ▲양수도계약 ▲병원적격증빙 ▲청년고용 등을 주제로 한 14편의 동영상은 5분가량의 짧은 분량 속에 치과 개원가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깨알 같은 절세 팁과 세무 회계의



서울서 시작 5개 도시 순회 강연 관심폭발 개원가 실질적 절세 근간 마련 큰 의미 정부 국회에 세무정책 관련 지속건의

국과의 논리 싸움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세무, 회계 정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왔다.

#입소문 탄 '미니 MBA' 전국서 흥행돌풍

특히 치협은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황재홍)와 올해 1월 꾸려진 치과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위원장 정명진)를 중심으로 치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무, 회계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보했다. 이중 '미니 MBA 과정'은 효율적인 치과 세무대책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 치과계 안팎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은 결과물이다.

특히 3월 31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원리를 밀도 있게 녹아 내고 있다.

또 치과의사 회원 1088명이 참여한 '2019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치과 개원가의 경영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치과 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공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치과에만 불리한 세무 개선 '전력투구'

아울러 치과 병의원에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내외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예비 작업도 병행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꾸준히 축적한 자체 현황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

점과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해 불합리한 점들을 연구하고, 흥보하는 과정을 만들어 갔다.

치협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와 치과 개원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요로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치과 병·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황재홍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치협이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미니 MBA, 세무·회계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의 정책들은 바로 경영의 최종 책임자인 치과의사가 회계나 세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특히 개원가의 실질적 절세를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는데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울러 국회나 정부 등에 세무 정책과 관련된 건의를 꾸준히 해온 것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의료장비는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치협 30대 집행부는 미니 MBA 과정, 세무·회계 유튜브 동영상, 연구용역 의뢰 등을 통해 치과 세무 대책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 개원가의 세무·회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단초를 마련했다. 사진 위쪽부터 서울 미니 MBA 과정, 광주 미니 MBA 과정, 세무·회계 유튜브 동영상.



PROSTHODONTICS 명불허전

명불허전이라는 제목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 그 가치를 둘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 보철과 이양진 교수님을 모시고 임상일지 형식으로 쉽고 편안하게 정리하여 선생님들의 진료실에 확실한 임상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명 : 심미케이스의 테크닉 보다는 진료실에서 부딪히는 애매모호한 판단의 근거화립에 초점!

불 : '아뿔사~ 이를 어쩌나, 이건 또 뭐지?' 얼른 주워 담아 숨기고 싶은 증례들을 모아!

허 : 진료실에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토론하는 장!

전 : 그간 치료했던 증례 중에서 널리 알리고 싶은 케이스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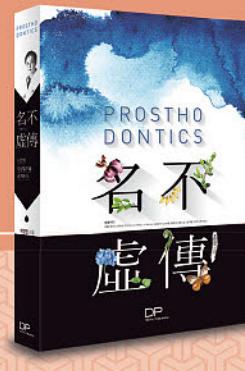
이양진 저음 / 490페이지 / 160,000원

더블패키지 이벤트 월간 KJCD 구독신청(연장)과 단행본을 함께 하시면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02-926-3682 | 월간지 정기구독료(1년 17만원/연장 16만원) | 입금 : 317-0013-7678-31(농협) / (주)치과계

많은 선생님들이 구입해주신
보철에 강해지는 책

NAVER 치과 검색



Case Discussion

2019 결산 스페셜 방송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Case Discussion과 함께 하세요!

그동안 바쁘셔서 보지 못했던 강의를 한번에 스페셜방송으로 시청하세요!!!

2019. 12. 24 오후 6시 ~ 2020. 1. 31 오후 6시까지

You Tube MEGAGEN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임상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www.megagen.co.kr/live/discussion에 접속만 하세요!



이정삼 원장

Unfair Game 1. Why is the maxillary anterior implant difficult?

Unfair Game 2. Root Membrane technique을 이용한 성공적인 전치부 심미수복

Unfair Game 3. #21, #22 Root Fracture 증례에서 Root Membrane Technique를 이용한 전치부 수복

Unfair Game 4. Premolars에서 Root Membrane Technique를 이용한 심미수복

Unfair Game 5. Hard Tissue Management vs. Soft Tissue Management in Posterior part 1 (FGG)

Unfair Game 6. Hard Tissue Management vs. Soft Tissue Management part 2 (IAPF)

박휘웅 원장

4개의 임플란트와 Multi-Unit Abutment을 이용한 하악 전악 수복

Meg-Loc Attachment를 이용한 Implant Overdenture 증례

Advanced Intermezzo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전치부 수복 증례

임플란트 보철 인접 진출 상실과 food impaction의 원인, 대처 및 예방

R2GATE Guide를 이용한 상악전치부 Guided Implant Surgery 증례

임플란트 크라운을 이용한 ISRPD 증례

홍순재 원장

새로운 개념의 임플란트 드릴, Densah Bur 사용 후기

덴사버 사용 후기 (상악동 Internal Sinus Lift 적용 케이스)

최진 원장

최적의 저작기능을 위한 전략적 선택!

임플란트를 이용해 교합고경 회복을 할 때 필요한 턱관절 검사방법

늘 어려운 전치부 임플란트

언제나 어려운 전치부 임플란트 (Connective tissue graft)

임플란트 실패당 4년 걸린 환자

정찬권 원장

예지성있는 심미적 결과를 위한 최상의 임상접근법!

외상 발진 후, 심미적인 Poron 형성을 위한 임상접근 증례 외

임플란트 수복 마무리, 수복률의 contour!

발진 후 평평의 임상 접근법

구치부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적절한 사용 및 F/U 증례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 시 3차원적 위치의 이해

윤정훈 원장

발치즉시시립 임플란트 수술 1 (구치부 flapless 발치즉시시립 임플란트의 시립전략)

발치즉시시립 임플란트 수술 2 (치근단병소 혹은 fistula가 있는 치아의 즉시시립)

창동욱 원장

'뻔하지 않은 Fun'한 GBR 이야기 1 (Ridge augmentation)

'뻔하지 않은 Fun'한 GBR 이야기 2 (Immediate implantation / LT6)

'뻔하지 않은 Fun'한 GBR 이야기 3

이주환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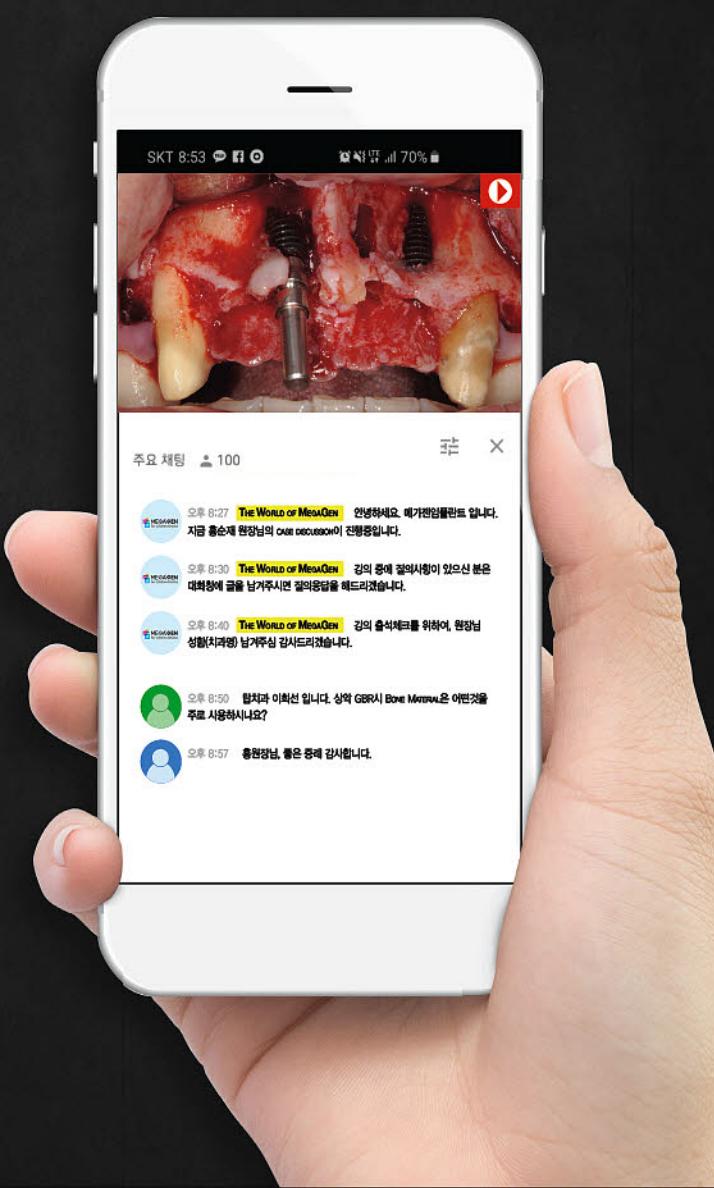
예지성을 높이기 위한 임플란트 보철 (Joint stability를 위한 non-hex abutment의 필요성)

예지성을 높이기 위한 임플란트 보철 (컴퓨터 가이드 수술의 허와 실)

아! 이를 어찌나? Episode 1 (Management of sinus graft complication)

아! 이를 어찌나? Episode 2 (Management of peri-implantitis)

고합고경 상실된 난증례 위한 교합 재설정 및 체득방법



공직 치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치의 윤리포럼, 21일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도

치과의사 윤리포럼(대표 김현풍·이하 윤리포럼)이 공직 치과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치과계 윤리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윤리포럼은 지난 1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공직 치과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해결과 치과의사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심층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임철중·박종수·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은아 강원지부 회장이 참석했다. 또 차혜영 전 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임용준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박덕영 강릉 원주대학교 교학부총장, 김은숙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나성식 스마일재단 명예 이사장,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과장,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 연구센터 교수, 김미자 부산진구 보건소 사무관, 지현정 안산상록보건소 사무관

등이 합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 치과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김미자 부산 진구 보건소 사무관은 “현재 공직에 진출한 치과의사들은 주기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치과의사들의 발언권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현정 안산상록보건소 사무관은 “19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직 상태”라며 “공직 치과의사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시설 및 임금 체계로 인해 일의 보람을 찾기 힘들다. 이는 치과의사의 위상이 추락한 것”이라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건 요양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과장은 “보건소뿐 아니라 요양병원 역시 치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는 낮은 임금 체계와 공직에서 치과의사의 입지가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에서 치과의사가 줄어들면 앞으로 구강



치과의사 윤리포럼이 지난 12월 21일 회의를 열어 공직 치과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사업을 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들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교수는 “윤리란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배들이 후배들로 하여금 바른길을 걸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 치과에 대한 치과의사의 윤리 의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나성식 스마일재단 명예 이사장은 “장애인 치과도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김현풍 대표는 “국가기관 및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행법 개정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치과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치과의사들에게는 ‘리더 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 도덕적 재무장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공직 일선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 처한 상황에 기습 깊이 공감한다. 해결책 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김용식 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지부 회장에 도전하는 출마 선언을 했다.

실 부회장들의 선택 및 결정은 추후 때가 되면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개를 미리 안하는 이유는 회장 선거가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선거로 흐르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정철민 전 서울지부 회장과 임용준 전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도 서울지부 회

장 선거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이 밝힌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보조인력문제 개선 및 성과 도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확대 및 치협 공조 ▲진료수의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 연구 ▲경영애로 회원 지원 ▲불법 의료 광고 퇴출 ▲사무장 치과 척결 및 의료 정의와 개원질서 확립 ▲시네스 학술과 전시회 조화 및 위상 강화 ▲투명한 회무관리 및 치협 공조 및 필요 시 견제 기능 강화, 대안 제시 ▲치협 내부 개혁 문제 차기 협회장과 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 날 출마 선언 간담회에는 김용식 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자 20여명이 참석해 회장 출마를 축하했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당부

박영섭 전 부회장 건보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예방

록 부탁드립니다.”

박영섭 치협 전 부회장이 지난 12월 19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 및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입법을 주장해 왔다”며 “그 결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박영섭 전 부회장(사진 오른쪽)이 12월 19일 윤소하 의원을 예방했다.

“1인 1개소법의 강력한 보완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



MEDI MEC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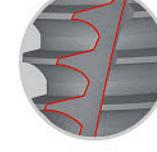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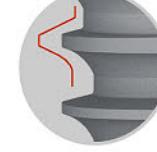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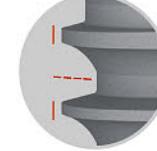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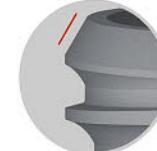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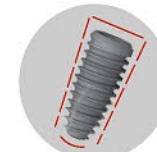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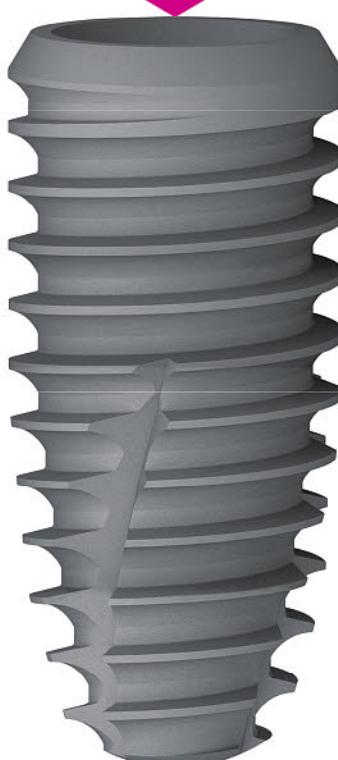
2019 수출의 탑 수상 감사 Promotion



차오름 임플란트 2019 LAST CHANCE

- 차오름 임플란트의 모든 것
- PT Fixture
- Abutment
- Dental Glove
- Mask
- Surgical Glove
- Drill KIT

50%



“2019년 메디메카 홍합접착단백질 원천 기술 확보”

홍합접착단백질이란?

- 홍합이 족사(足絲)라는 접착단백질을 분비해 단단히 붙어 자라는 성질을 이용
- 높은 접착력, 낮은 친수성, 낮은 표면장력을 가져 탁월한 물리적 특성 보유
- 이종골이식재에 수정된 홍합접착제를 적용 시 골재생 촉진 효과 확인

기술 특징 및 기대 장점

- 이전 세대 기술 대비 높은 초기 고정성
- 높은 골유착성으로 시술 시간 단축
- 자연 유래 단백질로 생체적합성 향상
- 이식 성공률 향상으로 환자 만족
- 인체 부작용 현저히 저감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가 출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
(예시 : 투자금액 3,000만원 : 소득공제율 100%, 투자금액 5,000만원 : 소득공제율 70%)

대리점 모집

대구, 대전, 광주

www.medimecca.co.kr

02-6933-9163

엄마께 여쭤보고 오세요!

평론

최치원 칼럼

최치원 치과의원 원장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치아우식증을 주소(主訴, Chief complaint)로 필자의 치과의원에 혼자서 내원한 적이 있었다.

기본적인 구강검진을 하고 치료계획을 세운 다음 진료비 총액까지 산정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가 필자는 순간적으로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 마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야! 진료비가 많이 나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여쭤보고 결정한 다음에 와서 치료받자~”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대뜸 이 여학생은 고개를 떨구면서 “저 엄마 없는데요!”라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학생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누구나 엄마 없이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

이 학생의 나이에 나는 엄마가 계셔서 엄마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랐었던 경험을 그 여학생에게 그대로 요구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면목이 없다.

하지만, ‘엄마에게 여쭤보라’는 의미는 통상적인 최종결정권에 대한 위임의 의미로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단어이지만, 무심코 던지는 나의 언어습관이 어떤 이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2019년 현재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 별거, 미혼모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11%인 약 5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치과의사가 과연 필자뿐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부모가정’을 ‘결손가정’이라고 스스럼없이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큰 거부감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결손’이라는 의

습관을 독자들께서도 한번쯤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칼럼의 소재로 삼아보았다.

그 날 이후 필자는 자기결정이 힘든 환자분들에게는 ‘엄마께 여쭤보세요’ 대신 ‘보호자와 상의하고 오세요’라는 다소 딱딱하고 사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무적인 표현이 애정어린 표현보다 앞설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던 사건으로 기억된다.

나의 언어습관 하나를 고쳐 딱 한 사람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쳐 불러야겠

무심코 말하는 언어 습관, 누군가에겐 커다란 상처로
이혼·별거·사별·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비율 11% 달해

...
치과의사에게도 가치중립적인 표현 구사 노력 필요해
“엄마께 여쭤보세요” 대신 “보호자와 상의하세요” 권고

미는 정상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의 사회적 편견이 내포된 단어이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서도 가치중립적인 표
현을 구사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도 꼭 필요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일 것이다.

변화가 주도하고 있는 현 사회적인 현상에 걸맞
게 사소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될 자신만의 언어적

다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에 대한 호칭(○○ 선생
님, ○ 양, 미스 ○), 환자에 대한 호칭(아버님, 어
머님, 어르신 등)에 대해 직원들과 연말 송년회 때
소재로 삼아보시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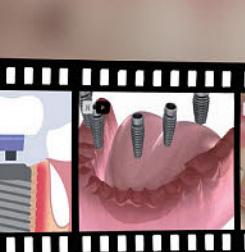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젠 환자와의 상담이
치과의 경쟁력입니다

치과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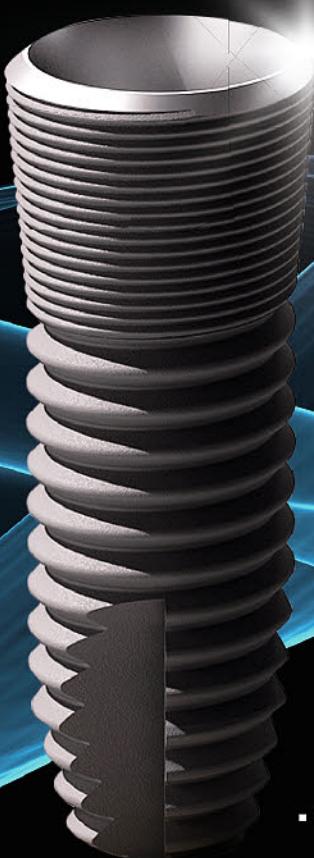
50+
Free Videos!



치과샘은 환자상담 영상 무료공유 사이트입니다. www.dentalsam.com

Join the EVolution

Astra Tech Implant System® EV



... looks more
Like a screw



아스트라 임플란트 EV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

혁신적인 one-position-only* 인터페이스를 채용한 아스트라 임플란트 EV는
탑 다운식 치료계획 수립과, 최신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YUHAN

**ASTRA TECH
IMPLANT SYSTEM**

구매 및 제품 문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Dental 사업부

마케팅 02-828-0517 영업부 02-828-0318

✉ www.yuhandent.com

✉ yuhandent

HOT ISSUE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내리자 김 철수 협회장 등 치협 임원,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 김 세영 고문 등이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이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촉구 하는 7개 단체의 공동 성명서를 지난 6월 8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7월 21일 한양대에서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현장 모습.



APDC 2019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가운데 코엑스 오디 토리움에서 개막식이 펼쳐졌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자 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아듀 2019 기해년

현재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보완 입법도 발의

2014년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 법률을 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여 만인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현재)가 재판관 '전 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1인 1개소법 수호에 앞장서 온 치과계는 환호했고, 헌법소원 청구 후 4년여간 이어져온 현재 앞 1인 시위도 1428일째로 멈췄다.

1인 1개소법의 실효적인 처벌을 위한 보완입법

도 가시화 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익 연대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2월 16일에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강정책과 부활, 구강보건정책 전문성 기대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12년 만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공식 부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구강정책과'를 탄생시킴으로써 올바른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으로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을 강조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182명 탄생

2019년은 신설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정착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8월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에는 2800여명이 응시해 최종 2163명(합격률 77.8%)이 합격했다. 여기에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을 먼저 취득한 통합치의학과 교수 19명을 더하면 올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는 총 2182명.

단숨에 11개 전문과목 중 최대 전문의수를 확보한 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첫 경과조치로 치러진 시험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2차 시험 합격률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년 시험에는 보다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참여인원은 7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APDC 2019 성공 개최, 치과계 새 역사 썼다

2019 기해년 한해는 한국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이정표가 마련됐다.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 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성황

리에 진행됐다.

총 등록인원만 1만 3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렸으며, 치협은 최고의 치의학 페스티벌을 준비함으로써 보고, 듣고, 즐기는 버라이어티한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 치과의사들에게 선사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이 기간 동안 APDF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자율징계권 확보 발판

올해 4월부터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 4월부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규제가 잘 이뤄져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으로 평가받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로부터도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계 휩쓴 이슈는

HOT ISSUE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각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한치과보존학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부터 지난 6월 28일 '각하' 판결을 받으며 종식됐다.

해당 헌소는 보존학회가 지난 2017년 12월 4일 제기한 것으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의 수련과정 및 수련경력 인정기준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었

다. 이와 관련 현재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을 생략한 규정 조항 ▲신설된 전문과목의 수련 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시행규칙 조항 등의 소 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보존학회 측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계가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보존학회 통치 헌소에 대한 헌재의 각하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철수 협회장이 헌재 앞에서 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비앤비시스템 기업회생 파문…치협 중재로 봉합

국산 레이저 장비업체인 비앤비시스템이 기업회생을 신청해 파문을 낳았다. 치과의사 유저만 1300여명에 이르는 해당 업체는 지난 수년 간 36개월 할부(리스) 프로모션으로 기기를 판매하며, 1년 동안 할부 분납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돌연 혜택을 중단했다.

사태를 인지한 치협은 회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

기 위해 레이저 장비업체 대응 TF(위원장 김영주)를 결성, 중재에 나서는 한편 지난 11월 긴급설명회를 전후로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탐진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서울 회생법원이 지난 11일 포인트닉스의 비앤비시스템 인수 건을 최종 인수 결정하면서 근 1년여 만에 사태의 해법을 찾았다.



비앤비시스템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긴급설명회가 지난 11월 1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이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줄지 않고 있다.

임세원법 통과,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의료인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진료실 내 폭행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의료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는 폭주하는 환자를 막기에는 요원

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모 의료인 폭력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진료실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비율이 무려 70%대를 기록하는 등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조 섞인 치과의사의 울림이 내년에는 지속되지 않을 바라며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치협에서 열린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 전문의제도 발전방안' 공청회 모습.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7월 17일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턴제 폐지 공론화, 공청회 개최…후속 논의 계속

경과조치 완료 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다음 개선 단계인 인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치협은 지난 19일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인턴제 폐지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인턴제도의 문제점은 인기과에 지원자가 집중되는 현상, 기관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

로 학부과정에서의 임상실습 강화, 전문과별 수련 기간 자율제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전공의단체 대표는 인턴제 폐지 이전에 인턴의 보조업무 수행문제, 원내생 임상교육 강화 부분은 바로 개선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 제도에서의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을 내놨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열망, 법안 통과 총력전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치협 집행부는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치의학연구원과 관련이 된 의원들이라면 위원회를 막론하고 간담회를 갖고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1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뤄져, 내년 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치협 집행부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외선 임플란트의 대표주자
포인트 임플란트

포인트 임플란트 패키지 계약 500%

아직도 고민하십

**국산이든 수입이든 임플란트 폐일나면
UV로 바꿔 심습니다.**



포인트 자외선 임플란트



당사 일반 임플란트

- 차별화된 임플란트 제품 고민
- Early & Immediately Loading 고민
- 임플란트 수술 실패로 인한 고민
- 낮은 임플란트 수가 고민

포인트 임플란트 데모 | 02)866-2877



UV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 골융합속도가 4배 빠르고 골밀도가 2배 강하며 신생골과 임플란트 표면사이의 연조직 침투율은 21배 감소한다. – UCLA Dr.오가와교수

<Takahiro Ogawa, DDS, PhD, Ultraviolet Photofunctionalization of Titanium Impla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 2014>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출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시 : 투자금액 3,000만원 : 소득공제율 100%, 투자금액 5,000만원 : 소득공제율 100%)



포인트·한림·포인트 임플란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15층

Tel : 02)866-2877 / Fax : 02)839-4973

www.pointnix.com www.hallim.com www.pointimplant.com

돌파!
됩니까?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
(율 70%)



전국 직영 사무소 및 A/S 고객 센터 강북사무소: 02) 909-6518~9 수원사무소 : 031) 244-7528 경인사무소 : 031) 315-2808
부산사무소 051)638-2878 대전사무소 042)822-2825 전주사무소 063)237-2805 대구사무소 053)767-3159 천안사무소 041)533-0366
광주사무소 062)655-7520 창원사무소 055)263-2870 강릉사무소 033)920-2369 제주사무소 010)9946-3995





미담의 주인공

Relay Essay 제2366번째(10월 21일자 게재)

이를테면 전철역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부스 같은 곳에서 가방을 발견한다. 가방 안에는 고액권이 꽉 차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망설임은 있었겠으나 신고를 하고, 그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드디어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 매스컴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다.

이런 행운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품성도 품성이지만 우선 물건의 발견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란 좀처럼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확률과의 싸움이다. 유독 이런 행운과는 거리가 멀어 500원짜리 복권 1번 당첨이 되지 못한 나이지만 2번 분실물을 발견하는 기회가 있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았을 때이니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아들과 함께 사우나에 갔었다. 나는 위쪽 옷장을, 키가 작은 아들은 아래 쪽 옷장을 차지하고 막 옷을 벗으려는데 아들이 소리쳤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들의 옷장 구석에 지갑과 금빛 시계가 있었다. 두툼한 고급 가죽 지갑과 소위 밀하는 로렉스 금딱지 시계였다. 은근히 욕심이 나기는 했지만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은 너무 비교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우나의 종업원을 불렀다. 종업원 2명이 달려왔다. 나는 습득한 물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들과 함께 목욕실로 들어갔다.

약 1주일 후 다시 그 사우나에 간 나는 그 물건들이 주인에게 잘 전해졌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종업원들의 태도가 수상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종업원의 태도는 그런대로 참을만했다. 다른 1명은 눈 까지 부릅뜨고 나를 익박질렸다. 내가 그들에게 물건을 전해 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기는 했지만 찾을 수 없는 증인이었다. 나는 그 양심 불량의 종업원들에게 따져 봤자 별 소득이 없이 싸움만 일어 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억울했다. 차라리

경찰서에 신고를 할 걸 그랬다는 생각과 함께 온갖 숫자들이 나를 괴롭혔다.

지갑의 두툼함으로 보아 약 30만 원 정도의 현금, 중고 로렉스 금딱지 시계의 값 그리고 2명의 종업원이니 이것이 반으로 나누어졌을 것이고, 아니 그들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7대3 아니면 6대4일지도….

하여간 이런 숫자들이 아직도 가끔 나를 괴롭히며 그때마다 그 종업원들의 밀살스러운 얼굴의 표정도 함께 떠올랐다.

이번에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의 일이다. 골목길에서 까만 지갑을 발견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할머니께 들켰다.

“너, 이거 무슨 지갑이니?”

“응, 주웠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지갑을 빼앗아 가셨다가 약 1주일이 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혹시 우리 동네에 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나 알아보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더구나. 그러니 네가 쓰도록 해라. 그런데 할머니가 그 돈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쓸 거야. 그러니 너는 반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 한테 한꺼번에 다 주면 낭비 할 수 있으니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라. 알았지?”

“응.”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후에 필요할 때마다 할머니께 돈을 받아서 썼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께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이 거의 1년 동안을 그 돈으로만 썼으니 꽤 많은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할머니께서 그 지갑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생기지만 그 당시의 경찰서라는 게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신뢰할 곳이 못 된다는 생각과 내가 할머니께 돈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께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낭비하면 안 된다

는 말씀을 잊지 않은 것, 또 습득한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돋는데 쓰신 사실로 볼 때 우리 할머니는 꽤 바르신 분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즉 할머니는 내 마음 속에 미담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억들이 나에게 추억이기는 하나 완전한 추억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주은 돈의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추억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었을 때는 이미 할머니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추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사우나에 가서 물건을 주었던 우리 아들의 추억은 어떠할까? 외형적으로는 내 추억과 같은 추억이겠지만 돈의 양을 확실히 모르는 한 완전한 추억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나처럼 그 돈의 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지도 모른다.

생각이 난 김에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 약 30만원의 돈, 그리고 로렉스 금딱지 시계의 값에 대해서. 물론 5대5, 6대4, 7대3 등의 쓸데없는 말은 빼고 말이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아들의몫이다.

나는 내가 보았던 사실만 이야기만 해 주면 그만이지만 은근히 걱정이 된다.

‘역시 우리 아버지야’ 하고 아들이 흐뭇해하며 나를 미담의 주인공쯤으로 여겨준다면 다행이지만 ‘흥,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정직했군.’ 하며 콧방귀나 뀌지는 않을지?



안계복
안치과의원 원장

수상 소감

치과 안의 즐거움, 나의 영원한 벗 ‘글’

치과 의사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할 곳이 치과 원장실입니다. 어찌 보면 참 지루합니다.

여기서 글과 벗 삼아 살았습니다. 시, 소설, 동화, 동시, 시조, 미니픽션, 수필, 희곡 등 약 2000편 이

상의 작품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중 수필은 10편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유독 내게만은 수필이 어려운 장르였는데 이것으로 상을 받게 되니 더 기쁩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상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 내내 어린애처럼 설레었습니다. 상을 주시는 치의 신보에게 감사드리고, 내게 상을 받게 한 벗인 글과는 계속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국민구강건강 증진, 다각도로 모색하다'

치과위생사제도, 노인구강건강 등 연제 풍성
사회·학술·국가적 측면 치과인 윤리도 살펴
2019 대한구강보건협회 학술대회 성료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정문환·이하 구보협)가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관심을 모았다.

2019 구보협 종합학술대회가 '국민 구강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전등록 177명, 현장등록 37명 등 총 2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관련해 풍성한 연제의 강연이 펼쳐졌다. 먼저 김창희 교수(충청대 치위생과)가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 타 보건 의료 직종 사례 등을 살펴보며, 전문치과위생사제도 국내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성근 회장(대한노년치의학회)이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주제로 노년층의 구강건강관리 악화가 전신질환, 치매, 뇌졸중, 만성질환 등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며, 노인구강건강 관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조현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치간칫솔 사용의 임상적 의의'를 주제로 인접면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각종 문헌조사와 사례를 통해 치간칫솔이 임상현장에서 진단 및 관리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 마득상 교수(강릉원주치대)가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 균형현황'을 주제로 영국과 미국의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항목들을 소개하며, 향후 우리나라에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교수(대전보건대 치기공학과)는 '보철제작에서 구강스캐너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강스캐너의 장·단점, 정확한 인상 채득 방법, 성공적인 보철물 제작을 위한 고려 사항, 다양한 구강 스캐너 활용 방안 등을 고찰했다.

치과의사 의료윤리와 삶 집중조망

의료윤리강좌에서는 치과 의료인이 지켜야 할 의료윤리와 삶을 집중조망했다.

김철수 협회장이 '사회 관계적 측면', 정문환 회장이 '학술 임상적 측면', 장재원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해당 주제를 다뤘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일부 치과의사의 비윤리적 행동이 치과계 전체에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신뢰는 떨어지기는 쉽지만 회복하기는 힘들다"며 "치과계 각 구성원이 윤리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 대한구강보건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22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정문환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정문환 회장은 ▲의학적 딜레마 ▲번 아웃 신드롬 ▲역사적 성인 삶에 대한 종 단적 연구 등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치과 의료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라. 일하는 뇌와 힐링하는 뇌가 따로 있기에, 감정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외로움과 슬픔을 가리지 말라"며 "항상 위로하고, 자주 관리하고 가끔 치료하라. 불안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라. 경쟁을 멈추고 연대감을 높이자"라고 강조했다.

장재원 과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도 치과 의료인이 삶의 방향성을 잊지

않도록 지속해서 협조할 것이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아 폭넓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발표 시장에서는 ▲대상 최길복 씨(경북대 치위생과) ▲최우수상 문예림 씨(충청대 치위생과) ▲최우수상 도유정 씨(대전보건대 치위생과)가 수상했다.

정문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의학 수준 및 기술 발전이 실제 국민 구강건강과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구강건강을 높히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중요하다.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이러한 신념을 단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제23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및 추천위원회 소집

| 추천위원회 일시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추후 개별통지

- 후보자 자격 :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으로 치과계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봉사하고자 하는 자
- 후보자 등록기간 : 2020년 1월 6일 ~ 1월 20일
- 차기 회장 및 수석 부회장 후보자 제출 서류
 - 1) 후보자 소견서
 - 2) 이력서 1부
 - 3) 주민등록 초본
 - 4) 회원추천서 (10인 이상)

- 추천인 자격
 -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에 한함
 - 당해 추천위원회 위원은 추천인이 되지 못함
 - 추천인은 동일한 직위의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음
- 후보자 등록 및 서류제출 방법
 - 양식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kwda.co.kr)에 게시
 - 우편 제출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과의사회관 309호
 - 온라인 제출 : 이메일 kwda1@hanmail.net

제 1 4 회
2 0 2 0

샤인학술대회

2020.2.2. sun COEX 1F GRAND BALLROOM

Session 01 Back to the BASIC

- ◎ 제7회 샤인 학술상 수상자 강연
치과외래에서 약물처방하기
- 1. 약처방과 관련한 심사기준
 - 2. 대표적인 처방약들의 성분과 상품명
 - 3. 용법과 용량을 고민해보자



황성연 원장
사람사랑치과

11:00 - 11:30 Break

실전 Inlay, 원 포인트 레슨!

- 1.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 2. Step by Step 인레이 프렙
- 3. 세라믹/레진 인레이를 위한 접착의 실제



김선영 교수
서울대 치과병원 보존과

12:30 - 14:00 Lunch

막막한 소아환자! 동영상으로 배우기

- ▶ 1. 한 번에 끝내는 유치 신경치료
- ▶ 2. 한 번에 끝내는 SS 크라운
- 3. 나도 할 수 있다 (Zr 유치 기성크라운)



문상진 원장
용인쥬니어 치과

15:00 - 15:30 Break

Panoramic radiograph : Beyond tooth.

- 1. 파노라마 판독 시 이것만은 꼭!
- 2.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의 3차원적 이해
- 3. 파노라마를 통한 임플란트 식립 전 screening



허경희 교수
서울대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Session 02 포기하지마! 7번

- 7번 엔도, 나만 어렵나요?**
- 1. 제2대구치의 엔도,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 2. 막막한 순간에는 이렇게
 - 3. 정신없이 엔도하다가 놓치는 것들



신수정 교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보존과

10:40 - 11:10 Break

병든 7번 구하기

- 1. 제 2대구치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 ▶ 2. 10분완성 7번 플랩 수술 테크닉
- 3. 소중한 7번을 위한 초간단 GTR



조인우 교수
단국대 치과병원 치주과

12:10 - 13:40 Lunch

최후의 보루 replantation

- 1. Re endo 할까? 재식술 할까?
- ▶ 2. 다시 쓸 치아 안전하게 발치하기
- ▶ 3. 의도적 재식술 단계별 술식



조신연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존과

14:40 - 15:10 Break

7번 교정: 올릴까, 세울까, 대체할까?

- 1. 내일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쉬운 MTM
- 2. 고정원: Miniscrew, Implant, 주변 치아?
- 3. Scissor bite 솔루션



김일영 원장
크리스탈치과



SHARING

지식의 나눔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 등록방법 : 덴탈이마트 온라인접수 www.dentalemart.co.kr

| 등록비 : 사전등록 - 3만원 현장등록 - 7만원

| 문의 : 1544-2809 / 080-811-2201

DV POINT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전액은 DV POINT로 100% 적립됩니다.
오실 때 이용하신 대중교통 이용료를 DV POINT로 적립해드립니다.

2020년 1월, 3월, 5월 덴트웹 세미나 전 회차 등록마감!
똑똑한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을 샤인학술대회에서도 만나보세요.

| 주최 : SHINHUNG

| 주관 : (주)예낭아이앤씨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권은 현장에서 DV POINT 및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DV WORLD

DV WORLD 전시회가 함께 개최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DV 쿠폰 혜택을 기대하세요!



Session 03 심미수복의 고수



09:40 나의 구치부 심미수복 이야기

1. 뭔지 알고 지르코니아로 가?
2. 본딩할까 루팅할까?
3. 지르코니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김성훈 원장
김성훈 치과

10:40-11:10 Break

11:10 나의 전치부 레진이야기

통합토론

1. 나는 이런 경우 레진한다!
2. 전치부 space 해결하기
3.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전치부 레진



조상호 원장
수성아트라인치과

12:00-13:20 Lunch & Learn

똑똑한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 소개

덴트웹 이현욱 대표

13:20-13:30 제 8회 샤인 학술상 시상식

13:30 나의 라미네이트 이야기

통합토론

1. 나는 이런 경우 라미네이트한다.
2. 무삭제, 미세삭제, 최소삭제
3. 깨지지 않는 라미네이트 접착법



박종욱 원장
드림치과

14:20-14:50 Break

14:50 나의 전치부 크라운 이야기

통합토론

1. 나는 이런 경우 전치부 크라운 한다.
2. 재료 선택 : Glass Ceramic? 지르코니아?
3. 극강의 심미를 위한 결손부 처치법



정찬권 원장
에이블치과

15:40-16:10 우리들의 전치부 이야기 : 증례와 함께 나눠보는 통합토론

Session 04 안전한 교정치료의 A to Z



10:00 교정치료의 시작부터 끝: 브라켓

1. 치아는 왜 마음대로 안 움직일까?
2. 브라켓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3. 브라켓이 꼭 필요한 순간



최윤정 교수
연세대 치과병원 교정과

11:00-11:30 Break

11:30 안전진단: 교합평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트레이싱 계측을 할 뿐 의미를 간과?
2. 같은 3급 중례인 듯하나 전혀 다른 케이스
3. 고무줄을 잘 거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



고범연 원장
고범연 XO 치과교정과

12:30-14:00 Lunch & Learn

똑똑한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 소개

덴트웹 이현욱 대표

14:00 레벨링 단계의 레벨 업

통합토론

1. 초기배열을 할 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한 고찰
2. 교정은 힘! Force driven mechanic이란 무엇인가?
3. 초기배열에 유용한 장치와 도구들



최형주 원장
서울바른치과

14:50-15:20 Break

15:20 안전한 공간폐쇄를 위한 몇 가지 임상 Tips

통합토론

1. 공간 폐쇄 중 안전하고 편안한 overbite 조절하기
2. 효율적 전치부 토오크 조절과 간단한 anchor loss 방법
3.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 치근흡수, ankylosis, screw fracture 등



임종기 원장
압구정연치과

16:10-16:30 아주 작은 습관의 힘 : 증례별로 살펴보는 통합토론

최신 보험심사경향, 변경사항 총정리 열기 '후끈'

치과건보 유명 연자 '실속 강연' 참가자 몰려

12월 15일 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성황

치과건강보험관련 유명 연자들로부터 최근 치과건강보험심사경향 및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을 총 정리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는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심사경향 및 2019년 보험 총정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 심평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과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욱 원장(TMD 치과), 조미도 실장(구미 미르치과), 김영삼 원장(레옹치과) 등 치과건강보험관련 유명 연자들의 인기를 반영하듯 사전등록이 조기 마감됐다.

특히 학술대회 당일에도 현장접수를 원하는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강연장 뒷편에 추가로 보조의자를 마련했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먼저 이미순 차장이 '심사삭감보다는 관리가 중요! 심사의 트렌드를 알자'를 주제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선별집중 심사(분석심사), 자율점검, 사후관리, 현지조사에 이르기까지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강호덕 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역사!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김욱 원장이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 조미도 실장이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과 사례', 김영삼 원장이 '발치 및 구강외과



대한치과보험학회는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심사경향 및 2019년 보험 총정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료의 보험청구'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덕영 회장은 "학술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연제나 연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평소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보험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자주 개최해 주길 바란다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0주년을 맞는 2020년도

에는 연초부터 새로운 각오로 회원대상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치과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 유익한 강연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회무의 소통성과 정기성 및 운영체계의 원숙함을 한층 더 강화해 치과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주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이 제3회 ISOF를 지난 12월 15일 경희의료원에서 개최했다.

수면과 코골이 치료에 대한 치의학적 방법론이 폭넓게 공유됐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과장 김수정)이 주관하고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가 후원한 '제3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하 ISOF)'이 지난 12월 15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Designing the Airway for Better Sleep: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ISOF에서는 13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 수면호흡장애 클리닉의 치과교정학교실 교수진이 연자로 나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접근법을 공

치의학적 수면·코골이 치료 매뉴얼 제시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 제3회 ISOF 성료

코골이·수면무호흡 환자의 이해부터 치료까지

유했다.

특히 코골이/수면무호흡 환자의 이해, 평가, 의뢰, 치료 등의 최신 프로토콜뿐 만 아니라 구내 하악전진장치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환자 선별, 장치 디자인 선택 및 조절,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법 등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수정 교수가 '수면호흡장애/수면무호흡에 대한 알기 쉬운 이해', '하악전진장치 효과에 대한 최신 위상', '하악전진장치 대상 수면무호흡 환자 유형의 교정학적 감별 진단 및 효

과 예측'을 주제로 코골이/수면무호흡 환자에게 사용되는 하악전진장치의 전반적인 배경지식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김경아 교수(경희치대)와 안효원 교수(경희치대)가 각각 '하악전진장치의 성공률 향상을 위한 임상 팁', '하악전진장치 종류별 제작 과정, 구강 내 적용 및 조절방법, 환자 설명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 후에는 핸즈온이 진행됐으며 하악전진장치, 구성교합 체득, 구강 내 장치 조절에 대한 실습이 이뤄졌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디알포토스
DrPhotos
"Ready for Doctors"

www.drphotos.co.kr



디알포토스에서 구매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AS대행과 대체장비 제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amFi 출장설치 45만원



DSLR 덴탈솔루션



구성품목(Camfi 별도)

Nikon 바디 + AF-S 85mm + 디알디퓨저
+ 악세사리(가방, UV필터, SD 16GB, 리더기 등)

(추천) D5600 기본패키지 150 만원
(부가세포함)

D5600 교정패키지 99 만원
(AF-P 18-55mm 렌즈로 교체)
(부가세포함)

디퓨저 단품은 **진덴탈**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070-4644-8900

‘시작! Best Dentist&Friend’

전국치대·치전원 학술대회 2월 개최

등록인원 1500명 목표... 예비 치의 화합추진

‘국민에게 믿음 주는 치과의사’ 큰 목표로 진행

조선대학교 치과대학(회장 황호길)이 주최하고 전국 치대·치전원 재경동창회 연합회(회장 김응호·이하 재경연합회)가 후원하는 ‘전국 치대·치전원 재경동창회 연합회 종합학술대회’(이하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를 앞둔 가운데 치과계의 관심이 뜨겁다.

재경연합회는 지난 12월 18일 기자간 담회를 열어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알렸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조선대, 경북대, 단국대, 전북대, 전남대, 강릉원주대, 부산대, 원광대 등 8개 대학 재경동창회가 힘을 모았다.

연합학술대회는 내년 2월 2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에서 개최되며, 각 대학에서 빠짐없이 연자가 나설 예정이다.

이에 재경연합회 측은 “60여 개 부스 설치와 등록인원 1500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며 연합학술대회에 기울이는 열정과 노력을 밝혔다.

‘시작! Best Dentist&Friend’를 슬로건으로 세운 연합학술대회는 Basic, Easy, Safe, Trust(기본에 충실하고, 쉽고 보편적이며, 안전한 진료를 통해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치과의사) 네 가

지를 기조로 삼아 대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재경연합회는 또 ‘출신 학교라는 경계를 넘어 치과의사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긍지를 갖는 치과의사를 양성하여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동문 회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동문 회원 중 우수한 연자 발굴 및 지원 ▲학술대회, 강연회, 강습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대학과 연계한 교육사업 개발과 지원 ▲동문 회원간 친목과 사업 번창을 위한 사업 개발과 지원 ▲대국민 언론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각 대학에서 총 12명의 연자가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남윤 원장(단국대·김남윤 치과의원)은 ‘Management & Maintenance of Soft Tissue Around Natural Tooth & Dental Implants’를 주제로 다룬다.

이어 천세영 원장(원광대·도화 국



전국 치대·치전원 재경동창회 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간 담회를 열고 내년 2월 2일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모닝치과)의 ‘3D 디지털 기술이 임플란트 임상에 미치는 영향과 장점’, 최용훈 교수(경북대·분당서울대병원 보존과)의 ‘완벽한 국소마취’, 김동석 원장(강릉원주대·분당 예치과)의 ‘성공 병원의 비밀노트-병원을 살리는 환자 관리’, 손미경 교수(조선대·조선대 치과병원 보철과)의 ‘가철성 국소의치 임상 Tip’, 김평식 원장(조선대·수원 초이스 치과의원)의 ‘근관치료 의뢰환자의 유형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한다.

또 이정진 교수(전북대·전북치대 보철과)의 ‘디지털 덴쳐’, 신준혁 원장(부산대·디지털아트치과의원)의 ‘Digital Art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김종철 원장(전남대·대구 미르치과)의 ‘3D 가상환자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 김용완 원장(원광대·양산 이플란트치과의원)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

립의 노하우’, 장호열 원장(부산대·장호열치과의원)의 ‘구치부 GBR’가 펼쳐진다.

이번 종합 학술대회를 주최한 조선 치대의 황호길 학장은 기자간 담회에서 “각 대학 재경회 및 동창회, 준비위원회와 후배들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

황 학장은 또 “모든 일이 그렇듯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모든 대학이 뭉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응호 재경연합회 회장은 “연합학술대회를 통해 대학 간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나아가 임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통로로 활용돼 치과의사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민제 기자 mireport@dailydental.co.kr

오스템, 전주서 첫 보철 마스터코스 진행

박종현 원장 디렉터, 1월 11일부터 8회 진행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다가올 경자년 전주에서 첫 보철 마스터코스를 연다.

회사 측은 내년 1월 11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전주 AIC 연수센터에서 보철 마스터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에서는 박종현 원장(서산 두리 치과의원)이 디렉터로 나서 커리큘럼 등 교

육 전반에 대해 탄탄한 준비를 끝마쳤다.

코스는 단순 임플란트 보철부터 전치부 임플란트 및 인접면 형성 교육과정으로 이뤄진다. 즉, 기본적인 부분부터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심화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임상의들로부터 인기 높은 임플란트 디지털 가이드 OneGuide System을



교육 커리큘럼에 삽입, 참가자들에게 CT와 템플릿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 및 보철치료가 가능한 보철 제작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오스템 교육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실습 부분도 강화했다. 실제 보철치료 환경과 비슷하게 코스를 진행해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보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스에선 참가자들이 오스템에서 직접 제작한 교보재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스템 관계자는 “보철의 방향성 및 이론과 실제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한 강의 진행을 통해 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참가자들의 임상 지식과 술기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임상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임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의 070-4345-7501.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디오 올해 전국투어 세미나 대구서 마침표

2019 디지털 교정 아카데미 성료

디오가 2019년 전국투어 세미나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디오(대표이사 김진백)는 ‘디오 디지털 교정 아카데미’의 마지막 전국투어 세미나를 지난 12월 8일 대구에서 개최했다.

올해 전국투어 세미나에서는 임상과 실습 강연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오현근 대표원장(ATC치과의원)이 연자로

나서 ▲디오 디지털 교정 소개 ▲디오 디지털 교정의 임상 증례 및 치료 사례 ▲핸즈온 실습 등 실전 임상 증례와 디지털 교정 DIO ORTHOnavi의 핵심비법을 공개했다.

특히 핸즈온 실습 강연에서는 디지털 교정 DIO ORTHOnavi 실습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노하우를 전수해 참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디오 측은 “이번 세미나는 임상 중심



디오가 디지털 교정 아카데미 전국투어 세미나를 지난 12월 8일 대구에서 개최했다.

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했다. 내년 DIO ORTHOnavi 세미나는 ‘상담에서 시작되는 교정치료’라는 주제로 치과 원장뿐만 아니라 상담실장, 진료실장과 함께하는 환자 중심의 교정 치료 세미

나를 기획하고 있다”며 “축적된 임상 데이터와 환자 마케팅을 접목시켜 지금까지와 다른 디지털 교정 세미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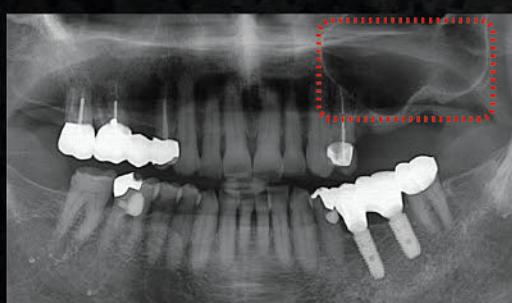


Bone Matrix I
by MEG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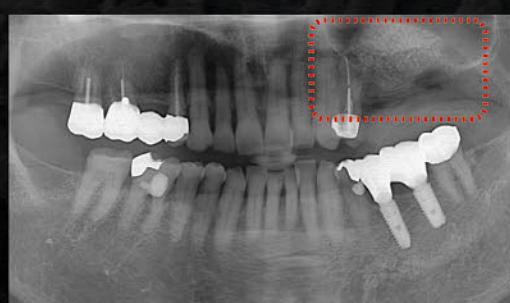
합성골 중 이렇게 빠른
골 형성 속도는 없었다

Bone Matrix 개발 자문위원 이대희 원장 임상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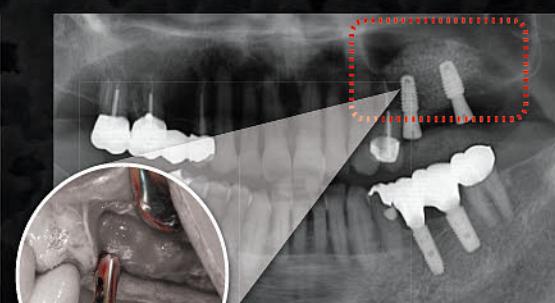
잔존골에서 3mm 위로 cut 시에는 너무 많은 양의 신생골이 확인되었고, 5mm에서 cut 시에도 많은 신생골의 양이 확인되었다. 이종골에서 보이는 신생골과 골이식재가 결합되면서 보이는 bridging effect 대신에 tissue fluid에 의하여 physicochemical하게 용해되거나 Macrophage에 의하여 phagocytosis 되어 흡수되는 골이식재 Bone Matrix I 주위로 신생골이 형성되고, 그 osteoid에 갇힌 lacunae 내의 osteocyte들이 관찰되었다. connective tissue나 blood vessel 주위로는 multinucleated Giant cell 같은 염증 세포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Surgery(수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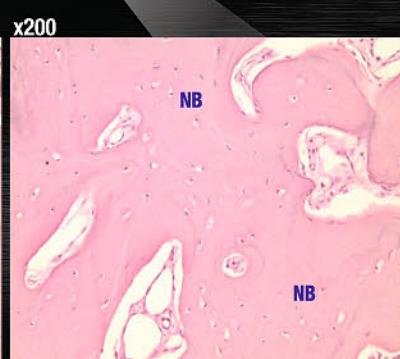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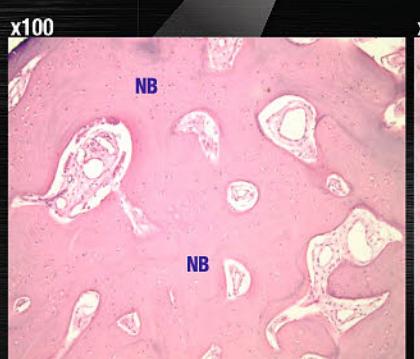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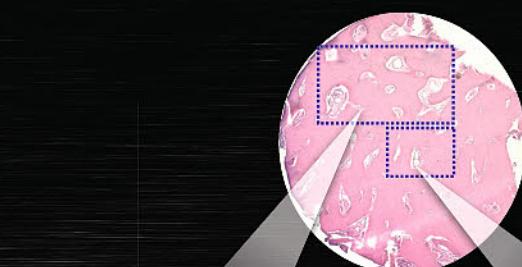
1st Surgery(수술 후)



2nd Surgery(5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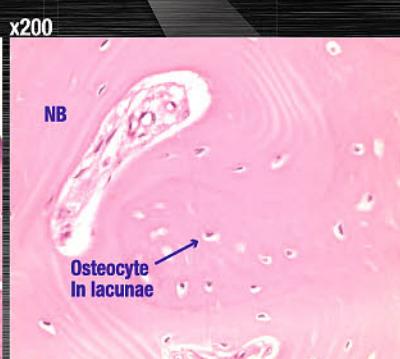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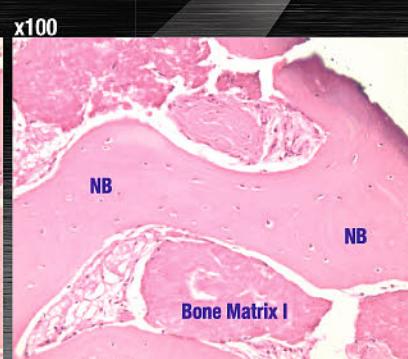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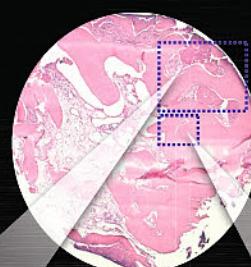
최소 70% 이상 골형성

최소 Graft material을 포함한 Vital bone formation 영역이 전체 중에서 70% 이상



최소 40% 이상 골형성

Graft material을 포함한 New bone formation 비율 최소 40% 이상



※ Test 기관 : 서울대학교 구강병리과

특별 임상강좌

턱관절장애의 보존적(재택자가치료) 치료방법(하)

9. 턱관절장애의 치료

턱관절장애의 초기 치료 목적은 증상들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거나, 재발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을 해소해 주고, 최종적으로는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야 한다. 우선 대증적인 보조치료법으로 턱관절장애의 증상들은 완화 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약습관의 중단 등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초음파치료, 이온도입 치료(iontophoresis), 경피전기신경자극법(TENS) 등 여러 가지 새롭고 발전된 물리치료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침치료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 되고 있다. 이외에도 발통점의 주사요법, 턱관절의 직접적인 주사 및 외과적 처치 등의 복합적인 치료방법이 필요하다.

외과적인 치료는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다면 해 볼 수 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수술도 많이 했지만 턱관절의 해부학 구조가 복잡하고, 미세하여 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턱관절치환술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치료의 협조를 생각할 때 환자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원의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존적인 치료방법이 일차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많이 강의되고 있는 보존적인 치료방법을 빼고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택자가치료법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1) 턱관절 운동

턱관절운동은 물리치료의 기본이며 중심으로, 턱관절 운동이 원활히 이뤄지면 개구운동 범위가 커지고, 통증이 완화되면서, 근경련도 줄어든다. Fig. 18, 19와 같이 행한다.



Fig. 18. 턱관절부위의 견인. 우측 손: 아래턱을 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좌측 손: 환자의 머리를 고정하고, 검지를 턱관절부위에 대고 과두돌기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Fig. 19. A: 턱관절의 내측/외측 활주 운동: 우측 손: 과두돌기가 내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턱에 힘을 가한다. 좌측 손: 오른쪽에서 가해지는 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손은 관골과 아래턱에 대고 받쳐준다. B: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을 아래턱에 대고 내전하방으로 밀어준다.

2) 연조직 운동

연조직의 운동은 아직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그냥 “턱관절부위에 마사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

인가 새로운 것을 말해준다면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연조직 운동은 측두근, 교근, 내익돌근 및 외익돌근 등에 하게 된다. 이외에 목부위 및 어깨부위의 근육도 함께 해 줄 수 있다. 측두근의 경우 Fig. 20. A, B, C의 그림에서와 같이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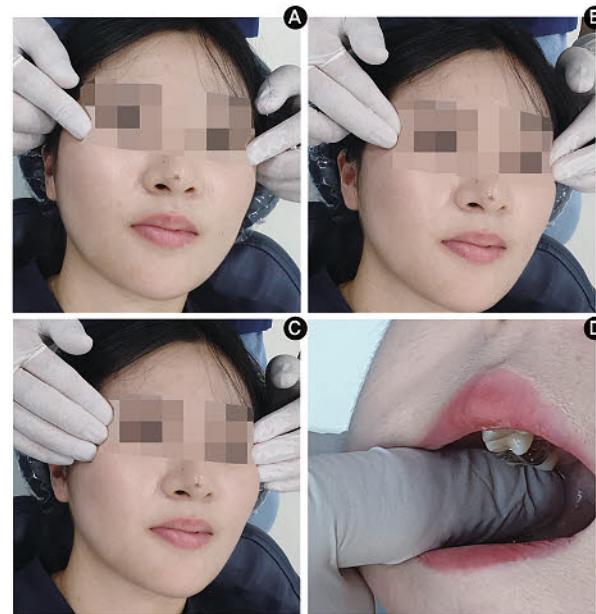


Fig. 20. A: 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측두근의 연조직을 움직여 준다. B: 두 손가락으로 힘을 보강하여 움직여준다. C: 세 손가락을 이용한다. D: 내익돌근의 운동 위치이며, 이보다 상방으로 손가락을 넣어주면 외익돌근의 운동이 될 수 있다.

10. 재택 자가 치료

턱관절장애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을 소개한다. 이것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온습찜질이나 냉찜질과 함께 Fig. 21에서와 같이 마사지 요법(A), 능동적(B) 또는 수동적(C)으로 입을 벌리는 방법 등이 있다. Fig. 22는 환자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턱관절 운동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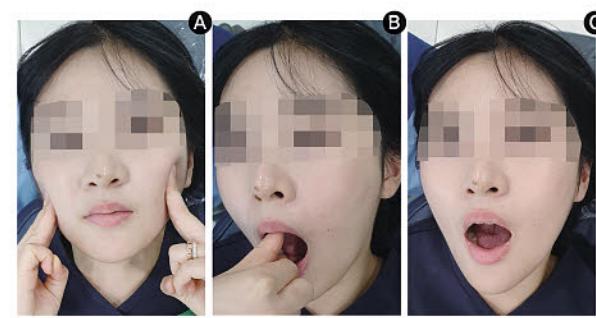


Fig. 21. 자가치료. A: 마사지치료 B: 능동적 스트레칭 운동 C: 수동적 스트레칭 운동.



Fig. 22. 턱관절의 자가운동법. 상: 아래턱 치아가 서로 맞닿지 않게 한 상태를 유지한다. 우측 손: 과두돌기가 내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턱에 힘을 가한다. 좌측 손: 좌측 손을 관골과 아래턱에 대하고 오른 쪽의 미는 힘에 대응한다.

필자가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강조하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요법으로, Rocabado 6x6 운동방법을 추천한다. 이 운동은 1일 6가지 운동을 6회 반복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는 Kraus의 운동법과 함께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 혀의 안정 위치

혀의 전방 1/3부위를 입천장에 대고 가볍게 눌러준다. 이때 혀끝이 상악 전치부 구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상, 하악 치아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며, 혀의 안정위치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코로 숨을 쉰다. 10을 센 후 혀를 원래 위치로 내리고, 이것을 6번 반복한다.

■ 턱관절 회전 운동

혀의 전방 1/3부위를 입천장에 대고 입 벌리기를 반복한다. 아래턱 과두돌기가 과도하게 전방으로 움직이는 경우, 혀끝을 입천장 전방에 붙이고, 과두돌기 후방에 가볍게 손가락을 댄 채로 입을 벌리면서 턱관절의 돌출부가 손가락에 닿으면 중단한다. 이때가 최대로 입을 벌릴 수 있는 범위이다. 이 범위까지 입을 벌리거나, 말하거나, 저작 시 과두돌기의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10회 개폐운동을 하고, 이것을 6번 반복한다.

■ 혀의 저항운동

1) 혀의 앞부분에 양손 세 손가락을 대고, 혀를 전방, 양 측방으로 움직인다. 이때 손가락에 힘을 주어 가벼운 저항감을 느끼도록 한다. 10회 시행하고, 이것을 6번 반복한다.

2) 아래턱의 전치부 교합면에 손가락 3개를 대고 하방으로 당기면서 입을 다무는 운동을 10회 시행하고, 이것을 6번 반복한다.

■ 목펴기

턱을 목 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귀와 어깨선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목을 세운다. 10을 센 후 목을 풀고, 6번 반복한다.

■ 안정적인 머리 구부리기

목을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뒤로 양손의 손가락 깍지를 끼고, 목을 세운 뒤 머리만 숙여 턱을 몸통에 붙인다. 10회 시행하고, 이것을 6번 반복한다.

■ 목운동: 턱을 최대한 몸쪽에 붙인 후 운동을 시작한다.

① 도리도리하는 모양으로 좌우로 각각 10회 머리를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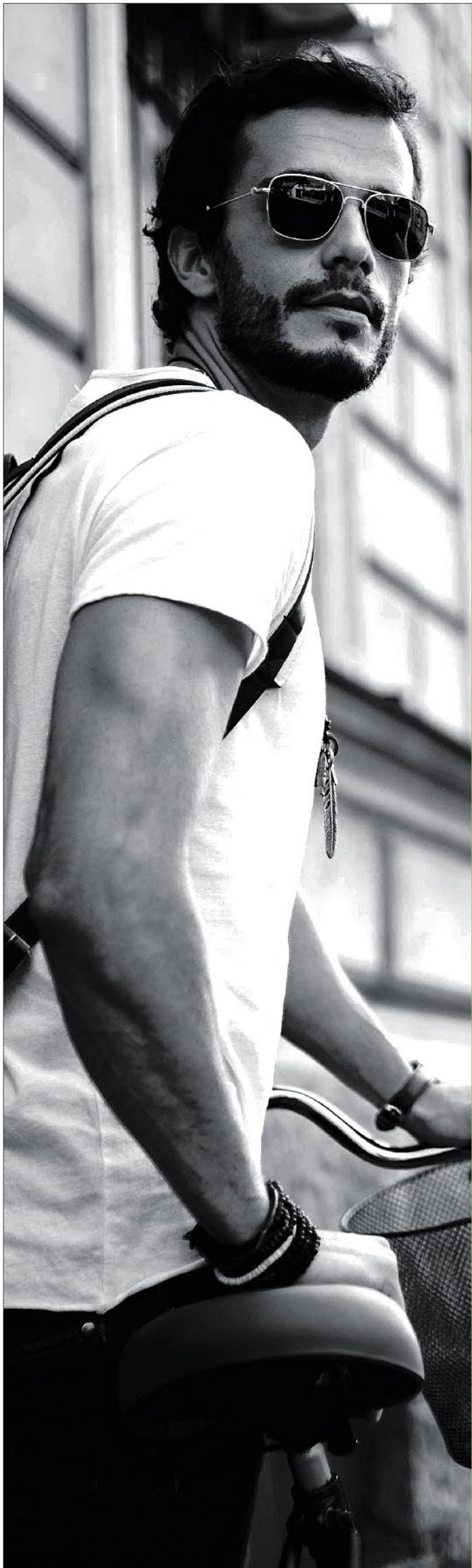
② 턱을 목에 붙인 상태에서 좌우로 숙여 귀가 어깨에 대는 느낌으로 각각 10회 반복한다.

③ 머리를 앞뒤로 숙이고, 젓히는 운동을 10회 반복 한다. 상호 억제작용으로 가벼운 정적수축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턱관절장애가 있으면 목이나 어깨도 아파질 수 있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의하므로 적극 참여한다. 목 운동을 할 때, ① 턱을 당겨 목을 붙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②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③ 처음부터 운동범위를 너무 크게 하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위의 목운동을 6번 반복한다. 위의 방법은 각각의 운동을 6번 하게 되므로, 필자는 환자에게 이것을 1일 6가지 운동을 1일 6회, 1회에 6번 반복하므로 6x6x6운동으로 설명해준다. 환자의 나이나 턱관절장애 상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턱관절에 염증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연한 음식, 작게 만든 음식 등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턱운동을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포스터의 재택자가 치료 부분을 찍어가도록 한다(Fig 23). 개원가에 나오니 학회발표도 한 번 발표하고 버리는 포스터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게 되고, 학회 규정과 다



Straumann® Bone Level Tapered Implant

장기안정성에 초기고정력이 더해진

Straumann Bone Level Tapered



In combination with:



- 연질골에서도 높은 초기안정성 보장
- SLActive 표면으로 빠른 골유착 가능
- Roxolid 재질로 인장강도 80% 향상

를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한글로 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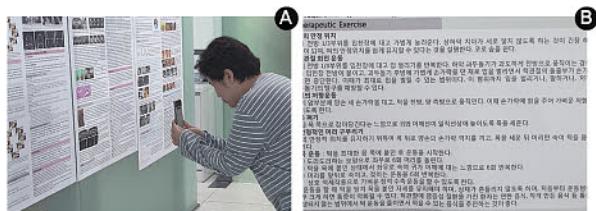


Fig 23. A: 환자가 영어로 발표된 포스터 중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재택 치료 부문을 촬영하고 있다. B: 촬영된 재택 치료 내용, 프린트보다 직접 촬영하여 갖고 있는 것이 편리하고, 항상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턱관절에 염증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연한 음식, 작게 만든 음식 등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턱운동을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하는 것이 좋다.

11. 교합장치치료와 교합조정

교합 안정장치는 일시적으로 교합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특히 이갈이 등 악습관을 가진 환자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이런 교합장치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교합장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턱관절 장애의 증상을 일으키는 일차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제거를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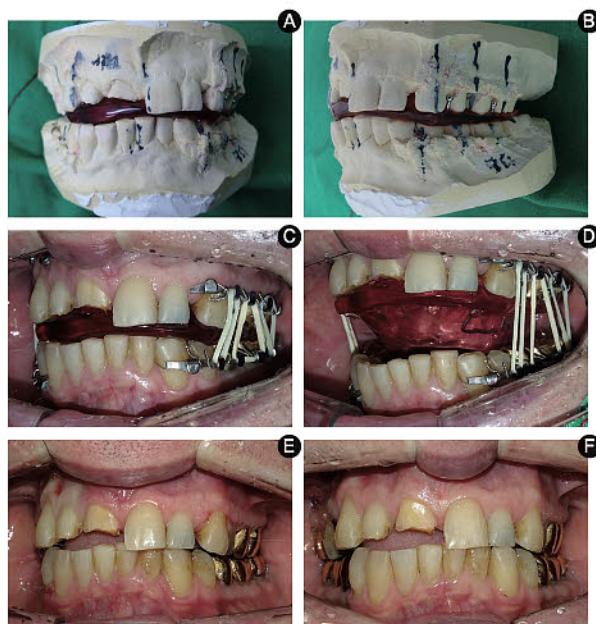


Fig 24. A, B: 모델에 적합해본 과두돌기 골절에 기능적 치료를 위해 사용된 교합 장치. C, D: 환자에게 장착한 모습. E: 초진 시 모습으로, 상, 하악 전치부의 정중선이 어긋나 있다. F: 치료 후 모습으로, 상, 하악 전치부의 정중선이 일치되어 있다.

Fig 24의 증례는 필자가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재택 물리치료법을 사용하게 한 환자의 경우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아래턱 양쪽 과두돌기가 골절 되었던 71세 미국인으로, 기능적 비관절적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강 내 스프린트를 사용하고, 고무줄로 견인하면서 스스로 물리치료를 하도록 설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필자가 환자에게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잘 나았다고 했더니 환자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면서 설명해주었는데, 자기의 처남이 미국에서 물리치료사인데 처남이 가르쳐 준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이야기 한 것이 위의 Rocabado 6x6 운동방법이었다.

12. 약물치료

몇 가지 약제가 턱관절장애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심이 되는 약제는 진통제, 소염제, 근이완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도포마취제 등이며, 턱관절 자체나 발통점에 주사하기도 한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인 주사는 조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근안면통이나 이갈이 및 운동장애 등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기도 한다.

13. 외과적 처치

외과적 처치는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턱관절장애의 증상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과적 치료는 관절강세정술부터 관절경 검사법, 관절절개술, 관절원판제거술 및 관절치환술까지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14. 요약

턱관절장애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진단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열쇠이며, 이것은 철저한 기왕력 채득과 임상검사에서부터 시작된다.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개원의로서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턱관절장애도 생활습관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환자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

참고문헌

김영균, 김수관, 윤필영, 이남기: 턱관절장애와 수술 교정. 대한나래출판사, 2018

조상훈: 치과개원의를 위한 턱관절장애. 대한나래출판사, 2017.

Kraus SL: Management of the craniomandibular complex.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88.

Kraus SL: Temporomandibular Disorders. In: Saunders HD, Ryan RS editors. Evalua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volume 1 Spine, 4th ed. Chaska, MN: The Saunders Group; 2004.

Hansdottir, R, Bakke, M: Joint tenderness, jaw opening, chewing velocity, and bite force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pain and matched healthy control subjects. J. Orofac. Pain. 18: 108~113, 2004.

Okeson, JP: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Occlusion, 7th ed. Elsevier Publishing, St Louis, 2013.

Pandarakalam C, Khalaf MW: Temporomandibular Disorders, 2014. <http://dx.doi.org/10.1016/B978-0-12-801238-3.00002-7>.

Shaffer SM, Brisme'e JM, Sizer PS, Courtney CA: Narrative Review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art 1: anatomy and examination/diagnosis. J Man Manip Ther 22: 2-12, 2014.

Shaffer SM, Brisme'e JM, Sizer PS, Courtney CA: Systematic Review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art 2: conservative management. J Man Manip Ther 22: 13-23, 2014.

김여갑 명예교수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 일본 오사카치대 및 오우치대 방문교수
- 천안충무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44년! - 정직한 회사

소형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HP-3041

저렴한 멸균비용!

- 150cc 멸균제 1병으로
표준사이클 15회 연속 멸균 가능

과거 멸균실행 결과 추적!

- 11년 이상 멸균기록을 저장, 출력 가능

PLASMA Sterilizers



용량 : 40.5 l



SINCE 1975
한신메디칼주식회사
www.hanshinmed.co.kr



영업부 직통
(032) 500-8846

대 전 : (042)623-4483 대 구 : (053)742-1016 대 부 산 : (051)583-4528 경 남 : (055)331-4315 경 북 : (063)905-4263 경 주 : (062)572-9041 원 주 : (033)764-7644 제 주 : (064)713-6735 종 로 : (02)2277-8670

10년 그 이상을 보장하는 쿠보텍 임플란트 !!!

치의신보
2019년 12월 30일
제2763호

KUWOTECH

Special S.L.A Surface

임플란트 주위염에 강하다!

S.L.A Surface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강하고 우수한 골유착을 통해 임플란트의 장기적 생존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Clin Oral Implants Res. 2015 Oct;26(10):1121-8.

• Short Implant
(Length: 5, 6mm)



• Micro Thread Implant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및 치료제 **Minocycline-Ointment**

트리톤®
치과용 연고

이제 마음껏 사용 하십시오!



[트리톤 제품]

- 치과용 10g
- 치과용 5g(최소 주문 수량 5개)
- 약국용 5g

치협, 진료봉사 활동으로 한 해 마무리

충남지부 함께 풍세면 지역민에 치과치료 실시
명예회원 추대된 양승조 도지사에 증서·감사패

2019 기해년을 마무리하는 치협의 지역 의료봉사가 충남 풍세면 지역민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치협과 충남지부(회장 박현수)가 주최하는 '지역민들의 웃는 얼굴, 구강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치과진료'가 지난 21일 김철수 협회장, 양승조 충남 도지사,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만 부회장 등 치과계 및 정관계 관계자, 충남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무료치과진료는 풍세면에서 선발된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이동버스에서 진행됐으며, 김영만 부회장, 박순재 원장 등으로 구성된 치과이동버스 의료진은 구강검진부터 충치치료, 레진, 스케일링까지 다양한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지역 특성상 노령층이 주류를 이뤘으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은 "나이가 많아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직접 이동버스로 풍세면까지 찾아 와 치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천안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일규

의원도 진료 현장을 방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마지막 의료봉사를 천안시 풍세면에서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계 긴밀한 공조 약속

아울러 이날 의료봉사에는 양승조 충남 도지사도 방문, 지역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한편 1인 1개소법 대표 발의 등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치협 명예회원증과 감사패를 양승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양 도지사는 과거 1인 1개소법 및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치과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신 분"이라며 "늦게나마 치과계의 감사함을 담아 명예회원증과 감사패를 드린다. 앞으로도 치과계와 좋은 인연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양 도지사는 "이 모든 일이 보건의료계 의료 정의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과계와 협력해 이룬 성과"라면서 "명예회원이 된 만큼 앞으로도 치과계의 한 일



치협과 충남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지난 21일 천안 풍세면사무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원으로서 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도지사는 치과계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충남 도지사 재임 후에도 지난해 충남도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 등 치과계 위상을 높인 공로한 양승조 충남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2019



명예회원증·감사패 전달

양승조 도지사가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치협 명예회원증과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 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kyj45@dailydenta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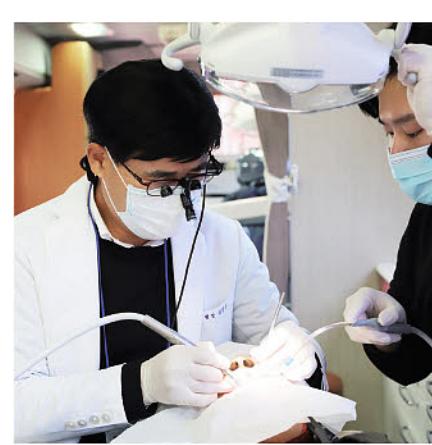
사공협, 노숙인 인생 2막 "함께 해요"

치협 등 14개 단체,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서 봉사
치과진료, 배식봉사 활동…500만원 비품도 기증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가 노숙인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자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2019년 제4차 사회공헌활동을 가졌다. 또 보존식 냉장고를 비롯해 500만 원 상당의 시설비품도 기증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 차순환 대외협력 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해 치과 진료, 배식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이어 내과, 한의과, 의약품 처방 등이 이뤄져 노숙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노숙인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이날 참가한 김철수 협회장은 배식 봉사를 비롯해 노숙인의 숙소를 세심하게 시찰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작은 도움의 손길

에도 감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노숙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진료에 나선 김종수 위원장은 지원된 이동치과진료차량에서 노숙인 10명의 구강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김종수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적어도 식사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료를 받은 오권표 씨는 "치과 진료를 받으니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움을 주신 치과의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의 마을 홍봉식 원장은 환영사에서 "노숙인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각 의료단체가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숙인을 위한 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mjreport@dailydental.co.kr

안계복 원장, 올해의 수필상

"글과 벗 삼아 사는 게 낙"

안계복 원장(안치과의원)이 본지가 주최하는 '2019 올해의 수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필게재·수상소감 20면). 시상은 1월 8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열리는 '2020 치협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안 원장은 본지 2744호(2019.10.21일자)에 '미담의 주인공' 이란 제목으로 2366번째 수필을 게재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필자의 어린 아들이 사우나에 갔다가 누군가 두고 간 지갑과 시계를 발견했던 일, 과거 필자 자신이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지갑을 습득했던 기억을 소환해 두 사건을 오버랩하면서 분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보여줬던 태도를 필자의 시각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사실 안 원장은 아동문학연구 문학상 동시부분 당선으로 등단한 프로 작가다.

강은정 기자

제27회 KAOMI 종합학술대회 iAO 2020

Knowledge Sharing, Knowledge Integration

"KAOMI & Osteology Foundation Joint Meeting"

2020년 3월 14일(토) ~ 15일(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홀

Keynote speaker



Young
Ku
(KOR)



Isabella
Rocchietta
(UK)



Daniel
Thoma
(Switzerland)



Ji-Man
Park
(KOR)



Hyun-Chang
Lim
(KOR)



Jung-Chul
Park
(KOR)



The Korean Academy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ology



등록방법

학술대회 홈페이지(www.kaomi.or.kr)접속
Registration을 클릭하여 온라인 등록 후
입금계좌로 입금(면허번호, 성명기입)

사전등록

2020년 2월 28일(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591-910025-19704(예금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등록 및 부스 문의처

Tel : 02)558-5966 / Fax : 02)558-5965

Homepage : www.kaomi.or.kr, www.implant.or.kr

E-mail : webmaster@implant.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THE KOREAN ACADEMY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OLOGY



옥조근정훈장 수상한 정필훈 교수

“연구와 수술은 나의 작품 활동이었다”

치료로 환자 얼굴 재탄생, 예술적 행복·위로 얻어
후배 치과의사 촉매제 역할…“국가·민족 위하길”

연말 치과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치과인이 올 한 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자를 치하하는 행사에서 가장 빛나는 수상을 한 것이다.

주인공은 정필훈 교수(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8회 2019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41명 중 가장 큰 상인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수상 후 만난 자리에서 정필훈 교수는 “보건의료계 전체에서 치과계가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에 영광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치과계도 의료계 못지않게 연구를 통해 임상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교수는 34년간 치의학 분야 치아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제 개발 주도, 국가 지정 연구소 및 전략연구소 책임자 역임, 서울치대 관악캠퍼스 건립으로 치과 의사 인재 양성에 기여, 세계 최초 풍차(치주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안면기형환자를 위한 45가지 성형재건수술법 개발 및 20여 년간 국제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수술봉사(15개국 861명)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았다.

긴 시간 연구에 힘썼던 원동력에 대해 묻자 그는 답했다.

“나는 원래 연구보다는 진료가 좋아서 임상가를 선택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실제로 정필훈 교수는 연구보다는 진료를 원했던 임상가였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가령 구순구개열 환자는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는다. 그러나 태아 시기에 수술하면 흉터 자국이 잘 남지 않는다. 그는 새 수술법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임상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구에도 몰입했다. 연구는 그와 잘 맞았다. 여러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필훈 교수는 연구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에 비유했다.

그는 “늘 새롭고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치료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수술이라도 결국 ‘수술’ 그 자체가 결점이다”라며 “가장 훌륭한 승리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기는 것이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역설적이지만 서전(Surgeon)의 최후 목표는 그



정필훈 교수가 선천성 안면열 장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칼을 버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구에 있어서 치과계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치과계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신진연구 부문에 참여해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앞으로도 치과계에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수상이 후배 치과의사에게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유년시절 그림을 좋아해 화가를 지망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시절 하동 문학상 단편소설에 당선되는 등 그는 여러 분야에 재능 많은 청년이었다. 치과 의사의 삶에 아쉬움은 없었을까? 그는

지난 삶의 소회를 풀어냈다.

정 교수는 “글과 그림을 좋아했기에 아쉬움은 있다. 대신 환자 얼굴을 치료해 재탄생시킴으로써 예술적인 행복과 위로를 얻었다. 연구와 수술은 내게 작품 활동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 교수는 “브라질 치과의사 찌라덴찌스를 아는가. 브라질 독립에 모든 생을 바쳤고, 그의 순국일은 브라질 국경일이다”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치과 의사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후배들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그림 그리는 치과의사 임주환, 첫 개인전 연다

‘의술과 예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주제
1월 2~31일, 천안 신방도서관 한 땀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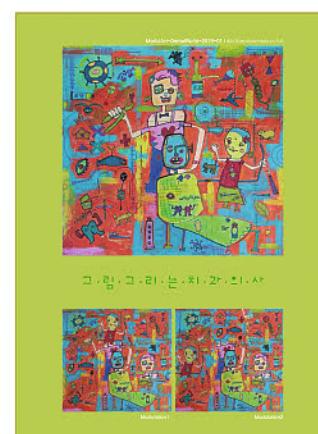
그림 그리는 치과의사 임주환 원장(천안 프라임치과의원)이 첫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의술과 예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를 주제로 한 개인전은 오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천안시 신방도서관 한 땀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은 총 25점이다.

그는 지난해 회화 작품 ‘소망’으로 제3회 치의미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망’은 어린 수녀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모든 이의 꿈과 소망이 이뤄지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인상적인 색감 활용과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임 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그려온 작품들을 단체전을 통해 몇 차례 전시 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가지게 됐다”면서 “치과의사로서 의술을 통해



구강영역의 몸을 치료하고 짬짬이 그림을 그려 스트레스 해소도하면서, 제 그림을 보는 분들께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됐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lie0923@dailydental.co.kr

강창동 대구가톨릭대 전공의 ‘우수 포스터상’

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수상

대구가톨릭대병원 강창동 치과 전공의(3년 차)가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회장 은희종·이하 레이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강 전공의는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구강점막질환의 치료에 대한 Er-YAG 레이저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에서는 자극성 섬유종(Irritation Fibroma)과 화농성 육아종(Pyogenic Granuloma), 편평 유두종(Squamous Papilloma), 혈관종(Hemangioma)을 Er-YAG 레이저를 사용해 치료한 임상증례를 통해 Er-YAG 레이저의 장점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강 전공의는 구강점막질환의 치료에 있어 Er-YAG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외과적 절제에 비해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를 높



대구가톨릭대병원 일동이 수상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박인숙 교수, 강창동 전공의, 이상재 전공의, 김지락 교수.

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창동 전공의는 “이번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동석 주임교수님과 지도해주신 박인숙·김지락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해 치과 임상에 적절한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리도카글액

“스케일링~이제 편안하게 받자”



덜 아픈 스케일링

시술 전 단계 국소마취

- 01 | 잇몸근처 및 잇몸 하 스케일링
- 02 | X-선 촬영 또는 치과 인상시 구역억제
- 03 | 구강 인두점막의 자극, 염증시 국소마취





핫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9)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랑니 발치 중 제2대구치 정출된 후 즉시 재식

사건개요

좌측 상악 사랑니(#28) 발치 계획으로 #28 치아 발치 중 제2대구치(#27)의 동요 및 정출로 #27 치아도 함께 발치 후 재식립 되었고, 이후 타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은 건으로,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27 치아를 발치하고 재식립하여 근관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추후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을 듣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24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28 치아가 볼에 닿아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치은염, 정출, 부분 매복 진단 하 #28 치아 발치 중 #27 치아 동요 및 정출되어 #27 치아 발치 후 재식립술 시행 받음.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진료내용, 향후 치료 계획 등 설명 받음.

2일 뒤 타병원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임상검사 상 #27 치아 동요도(-), 타진(+), 전기치수검사(-), 교합면 치아 우식, 방사선 검사 상 치조골 파절(alv. bone fx)이나 치주인대 확장(PDL widening)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피신청인 의원과 유선상으로 #28 치아 발치 시 #27 치아의 의도치 않은 정출 발생으로 발치 후 재식립 했음을 확인 받고, #27 치아 근관치료 후 보철물 장착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제3대구치(#28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제2대구치(#27 치아)를 발치하고 재식립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으며, 추후 임플란트까지 고려하겠다고 들었음.

의원측)

수술 중 부주의는 없었으며, 제2대구치 빌치 후 재식술 시행에 대한 사전설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사랑니 빌지를 위해 치은을 절개한 상태에서 구강내 다량의 출혈과 장시간 개구상태의 힘들고 긴장한 환자에게 제2대구치의 우선 빌치 후 재식술 시행 치아의 일련의 치료과정을 설명하고 우선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28 치아 진단의 적절성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8 치아가 볼에 닿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28 치아는 맹출 과정에서 교합면이 #27 치아의 원심면에 접촉되어 맹출이 진행되지 못하고 저작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 #28 치아를 빌치하기로 한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28 치아 빌치를 위한 진단의 자료로 1년 전 파노라마 영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8 치아는 Winter의 상악매복치 분류 Class B, 수직위에 해당하며, 치근형성이 거의 완성된 치아였고, 신청인은 만

24세의 결손치가 없는 안정적인 영구치열을 가진 성인으로 임상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치아 형태 또는 치열 상의 위치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빌치 시에 1년 전 파노라마 영상을 #28 치아 빌치를 위한 진단의 자료로 사용한 것을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28 치아 발치 1년 전 파노라마 영상(피신청인 의원)

2) #28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1년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8 치아와 #27 치아의 수직적인 위치 차이가 관찰되며, 피신청인이 빌치 과정에서 절개를 기뻤다는 기록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28 치아와 #27 치아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28 치아는 근심 치관부가 #27 치아 원심면에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27 치아와의 위치 관계상 빌치 도중 인접한 #27 치아의 동요나 정출과 관련된 합병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아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28 치아 발치 과정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3) #27 치아 재식술의 적절성

피신청인이 #28 치아를 빌치할 때 #27 치아의 우발적인 정출이 일어났다고 진료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출된 #27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래의 치조와에 재위치시키는 술식으로써 치아 재식술이 통상 시행되므로 이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타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재식한 #27 치아는 타진 검사에서 양성(+) 소견, 치아 동요도 검사에서 음성(-) 소견, 전기치수검사에서 음성(-) 소견, 교합면에 치아우식 소견이 있으나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치조골 파절, 치주인대 확장 등 비정상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아 치아 재식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27 치아 재식립 3일 후 치근단 방사선 영상



#27 치아 근관충전 후 치근단 방사선 영상

4) 설명의 적절성

#28 치아 빌치 시행 당일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에서 빌치 전에 기본적인 빌치와 관련된 과정, 주의사항, 인접치의 동요 및 정출 가능성 등에 대한 합병증과 관련된 시술등의서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음.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에는 #27 치아가

정출된 이후 신청인 및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음. #28 치아의 빌치 과정에서 #27 치아의 정출이 비록 우발적이었고 빌치 시술 과정에서 즉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여도 시술이 끝난 후 바로 #27 치아의 정출과 재식에 대한 설명은 필요했다고 판단됨.

나. 인과관계

#28 치아 빌치 도중 #27 치아의 우발적인 정출이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출된 #27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래의 치조와에 재위치시키는 술식으로써 치아 재식술이 통상 시행되며, 정출되었던 치아는 치수조직에 혈행이 끊겨 통상 근관 치료가 필요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본 건에서 #28 치아 빌치를 위한 진단 자료로 1년 전 파노라마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8 치아와 #27 치아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됨. 빌치 도중 인접치의 정출은 빌치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하나로써 신청인의 #28 치아는 그 위치가 #27 치아의 정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였으며, 빌치 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했을 것임. #27 치아의 정출에 대하여 치아 재식술의 시행은 적절한 대처였으며 이 경우 근관치료가 통상 수반되고, 그 예후에 따라 향후 #27 치아를 빌치하고 임플란트 치료가 고려될 수 있음. #28 치아 빌치 과정에서 #27 치아의 정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빌치 시술 동의 기록이 빌치 전 시행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27 치아의 정출에 대해서 시술 직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음.

파노라마 영상에서 #28 치아의 위치로 보아 빌치 시 #27 치아의 우발적 정출이 예견되므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 받은 기록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말
쉬운 교정!

#6 & #7 동시 후방이동!!



(주)쓰리디케이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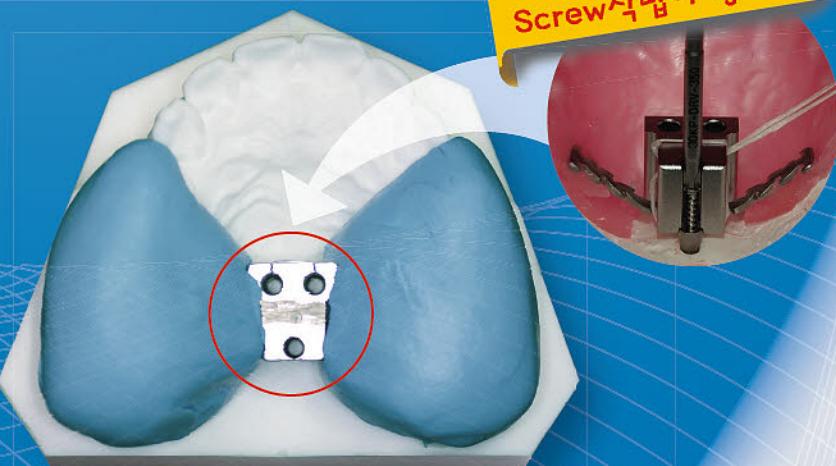
139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33(안양동)
TEL: 031-442-0077 / FAX: 031-448-0221
<http://www.3dkp.kr>
E-mail: 3dkp@korea.com



3DKP is a Good Present For Orthodontist

절대고정원을 구축하여 Mini Screw의 한계를 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교정치료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Guide Jig 사용으로
Screw식립이 용이함!



특별기고 |



김 덕 위원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1년 중 제일 바쁜 12월의 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 참석자가 많을 거란 생각은 애초에 접었지만 이건 완전히 그들만의 공청회였다. 주제가 인턴제 폐지에 관한 공청회였으니 개원가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주제 발표자 2인과 패널 토론자 5인, 사회자를 포함한 협회 관련 임원 몇 명, 그리고 학교 교수들 몇 명, 청중보다 토론자가 많은 셈이었다. 인턴제 폐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나 학생들이 좀 더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제일 먼저 주제발표를 한 차경석 교수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의 발표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제목 : 인턴제도 검토 등 수련 제도 발전 방안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9.11.19.~25)이며, 각 직역별(치과대학생, 전공의, 전문의, 전속지도전문의)로 설문을 취합하고 응답자수도 많아, 나름 의미 있는 설문 조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분석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결과의 통계만 내놓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일부 제시 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발표자 스스로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한 발표여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통계를 가지고 필자 나름의 분석을 해 보았다. 인턴제 폐지에 관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앞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재의 치과대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겪어보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평가해 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하는 의문을 먼저 갖게 된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을 인턴에 대한 선입견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인턴 과정 중에 있거나 막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공의(인턴 포함)들은 인턴제 폐지에 대해서 79.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인턴제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러 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공 선택 후 수련 시 타 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전공의 과정을 거쳐 차후 전문의가 되더라도 치과진료는 자기 전문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과목도 똑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특정과의 전공의 과정 중에 있지만 치과 진료는 그 특성상 환자의 치아와 구강에 대한 토탈 케어를 해야 하기에, 각 과별 인턴 경험이 비록 1~2개월의 짧은 기간일지라도 학생이 아닌 막 면허를 딴 새내기 치과의사의 시각으

인턴제 폐지 공청회 유감

로라도 다른 과의 진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김철환 교수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의 발표 내용은 이미 2016년에 보고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였지만 현재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 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 보였다. 먼저 의과의 경우 전문 과목 신설을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승인 평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치과의 경우는 별도의 전문 과목 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11번째 신설 전문 과목으로 통합치과를 만들

공과목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기에 특정과는 전공 의리를 아예 뽑지 못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며 만든 제도의 심각한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통합치과 전문의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2년 과정의 AGD 시절에는 매년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학생들이 AGD 과정에 남을 수 있었으나, 통합치과 전문의가 생긴 작년부터는 병원 내 과 개설의 한계로 인해, 1년에 고작 7~8명의 학생 만이 통합치과 전공의로 입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문의 다수개방이며 전문 과목 신설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참석자는 의과와의 형평성, 병원의 행정적인 절차, 의료법 내의 전문의 관련 규정 등 여러 가지의 부연설명을 하면서, 의과의 협조나 동조 없이 과연 치과에서만 인턴 제도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 전문의제도 이전과 같이 과거의 픽스턴 제도로의 회기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전공과목 선택의 편중은 일부나마 해소되리라 판단한다. 그리고 픽스턴 과정 중 과정에 따라서 다른 과로 파견 나감으로써 치과 진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나마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여전히 지적 되었듯이 인턴제 폐지를 주장 할 때 항상 나오는 수련 연한이 길다는 단점 해소를 위해서는 수련 연한 자율제의 과감한 도입을 주장한다. 지금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픽스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에 따라서 1+2 또는 1+3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 역시 이미 현 전문의제도 도입 이전 각 분과학회의 결정으로 과 별로 차등을 두고 시행해 왔었던 내용이다. 통합치과도 1+2를 도입하고 대신 픽스턴 과정 중 나머지 전 과를 현 인턴처럼 풀 로테이션 하도록 한다면 통합치과의 개설취지에도 더 합당하고, 또 기존 10개 과와 통합치과의 수련 과정 불일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첨언해 본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참석한 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전공의들에게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부탁 한마디가 가슴 속 여운으로 남으며 늦은 밤 공청회를 마쳤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친구추가 하세요.



ËLEC II mini

전기모터핸드피스 일렉2미니

BLACK EDITION

가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

전기모터핸드피스 일렉2미니
블랙에디션 출시기념

에어터빈 핸드피스
보상교환 **EVENT**

최대 63만원 할인



일렉 임플란트앵글 출시 기념

임플란트 옵틱 핸드피스
한정특판 **EVENT**

최대 30만원 할인



일렉 전용 오일스프레이 증정

SNS에 사용후기
올리시고

선물 받으세요



오일스프레이 증정 (500ml 1ea)

제품 사용 후기를 개인 SNS 올리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4만원 상당의 독일산
최고급 오일스프레이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10 2826 6132 문자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 가격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지역별 대리점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엔엑스



MicroNX
판매처 및 AS대리점

대표번호/대구본사 053 650 1000 / 010 3568 6132 / 010 9518 7202

서울사무소/서울, 경기 010 3801 5442 인천/에스엔에스덴탈 010 2431 0308

대전, 충청/예스덴탈 010 6434 2282 광주, 전남/이진성덴텍 010 9430 0099

부산/드림덴탈 010 5717 3651 경남/(주)이노텍엘앤씨 010 3571 3173

강원/스마트덴탈 010 2365 0511

전주전북/(주)참사람덴탈 010 9507 8898

울산/BL덴탈 010 5575 6154

월요시론



황충주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2019년 2월에 개봉한 ‘증인’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6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극한직업’에 밀려 누적 관객 수가 2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변호사역을 맡았던 정우성은 백상예술대상을 받았고 청룡영화상에서는 남우주연상을 받을 만큼 인정받은 영화이고 자폐아 역을 맡은 김향기 연기 또한 수준급이다.

이 영화는 살인 사건이 주된 내용이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듬뿍 배어있고 특히 자폐아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실을 보게 하는 여운이 남는 영화 중의 하나이다. 영화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순호’(정우성)는 과거 민변에서 오래 활동했으나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 세상의 벽을 느끼고 좌절하며 사람들이 그리 선량하지만도 않다는 것, 바꾸려고 애를 쓰고 뛰어다녀봤자 실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돈을 벌고 성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큰 기회가 걸린 사건을 맡게 된다. 집주인인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은 가정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사로,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김향기)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지우는 중학생이지만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폐증이 있지만 일반인 보다는 청력이 좋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순식간에 여러 개의 숫자를 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순호는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묻기 위해 지우를 찾아가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자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된다.

지우와 소통하는데 어려워 도움을 청하는 순호에게 검사인 김희중(이규형)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대화하려면 함께 천천히 걸어야 한다며 자폐아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니 지우와 소통하려면 본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조언을 해주자 그제야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순호는 지우와 친해지면서 재판정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지우 또한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사실 순호가 원하는 것은 지우가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어 노인은 자살했고 가정부는 무죄로 결론 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우가 의외로 살인 용의자인 가정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자 지우는 정상인이 아니며 자폐아로 증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무죄로 여겼던 가정부의 진술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호는 도리어 변호사가 범인이 가정부임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다.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2차 공판에서 지우의 증인이 필요하게 된다. 지우를 이용하여 한 순호에게 엄마는 이제는 지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우는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질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하며 다시 재판정에서 증언하게 된다. 지우의 뛰어난 청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당시 창문에서 들은 가정부의 혼잣말을 모두 기억하고 본 것을 증언하면서 순호의 논증으로 가정부는 사건 전말을 자백하게 된다.

순호는 사건을 승소하고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던 시점에 정의 실현을 위해 본인의 속물근성을 버리고 변호사직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견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지겠다는 다짐을 한다. 영화 마지막에 순호는 증인이었던 지우에게 ‘지우야 잘했어,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증인이 돼줬어’라고 말한다.

자폐아로서 겪는 삶의 불편함,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들이 가진 또 다른 능력을 우린 잘 모르고 있다.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며 “친구 신혜는 웃는 데 나를 이용하고, 엄마는 화난 표정을 하는데 나를 사랑해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우는 순호에게 “아저씨는 나를 보며 웃는데, 아저씨도 나를 이용하려는 겁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며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 영화 속에서 지우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에게 하는 것 같아 멈칫했다. 질문은 쉬운 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나 명년회라는 이름으로 정들었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물음부터 사랑, 믿음, 진실, 편견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문하게 된다. 여러분도 새해에 계획한 많은 일을 이루고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인터넷 치의신보
dailydental.co.kr

빠른소식, 풍성한 읽을거리
필요한 치과 정보,
치과의사 독자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치의신보

www.hi.co.kr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초과한 부분만 보상됩니다.

■ 합의 및 소송 업무 대행으로 든든하게!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책임 부담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그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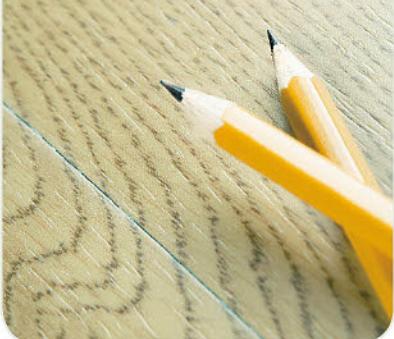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가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종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H 현대해상화재보험

Relay Essay
제2376번째

길
례
이
수
필



CONS ASIA를 다녀와서

‘만수르의 나라’로 많이 알려진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토후국이 연합하여 만든 연합 국가이다. ‘아랍권’의 나라라는 인식 때문일까, 나에게 아랍에미레이트는 낯설고 약간은 두려운 나라였다. 그러던 중 2018년 CONS ASIA 학회가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Sharjah)에서 개최되어 작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오게 되었다.

두바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든 생각은 화려하다는 것이었다. 공항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공항 내부 인테리어도 ‘만수르의 나라’답게 부유함이 느껴졌다. 또 뉴스에서나 봤던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에 내가 정말 두바이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들었다.

CONS ASIA가 개최된 샤르자(Sharjah)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부다비, 두바이 다음으로 제일 큰 토후국으로 문화적 도시라고 불린다.

우리가 참여한 CONS ASIA는 샤르자 교육단지 내에 위치한 University of Sharjah에서 개최되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된 만큼 아랍권에서 보존학을 전공한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연자분들의 강의로 채워져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회장에서 보낸 첫 2일 동안 샤르자 치과대학의 학생,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드라마, 음악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알고 놀라웠다.

학회 기간 중에 샤르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견학할 기회도 있었는데, 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모두가 인턴을 하면서 1~2년간의 수련기간을 가진다는 사실과 원손잡이를 위한 유닛 체어가 각 과마다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공식적인 학회 일정이 끝난 뒤 두바이, 아부다비 관광을 하



였는데 그 중 사막투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규모에 압도되었고 우리의 존재가 참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막 위 텐트에서 관찰한 일몰과, 쏟아질 것 같은 별들도 너무 아름다웠다. 두바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사막투어는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처음 참석한 해외 학회여서 설레기도 하였지만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교수님과 같이 간 선생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다. 학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끝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최양정
부산대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DENTAL

114

광고문의

- 담당자 : 황윤영 · TEL : 02-2024-9282 · FAX : 02-468-4653
- E-mail : yoon02cap@naver.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87-001101 (예금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신용 대출

제1금융권 최고12억

- ▶ 개원/예정의/봉직의 전문
- ▶ 무보증/무담보/추가대출
- ▶ 전문컨설턴트 전국 방문
- ▶ 안전하게 자금 조달/운영
- ▶ 2금융권 긴급 자금 운영
- ▶ 최고의 금융 노하우
- ▶ 신용등급 상향 관리

(주)KnH메디텍
02)597-6863

내과의원 건물매매

(치과개원가능)

전체건물 매매가 25억원(지하1층~3층)

대지 195.7평 연면적 577.87평

현재 전총 내과의원(인공신장실운영)이 사용중이며
1층일부 약국 임대 중(하루 처방전 150~200장)

- 투자자가 매입할경우 매매가 25억원, 보증금 3억원, 월 1300만원
- 치과개원 희망하시는 원장님의 매입할경우(25억매입)
3층에 치과 개원가능하며 내과의 하루 내원고객
약150 ~ 200명이 가방고객이 되어 개원이 수월함
개원 후 보증금 2억7천만원, 월 1100만원의 임대수익가능
- 내과의원 개원 희망하시는 원장님의 매입할경우(25억 매입)
운영중인 1층 약국과 3층에 치과 입점시킨 후 보증금 1억3천만원,
월800만원 수익가능, 현재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내과의원에
대한 인수절차 논의 후 인수기능(금액협의)

010-8846-1432

*광고사이즈가격 ◆ 4.4×4.0=4만원 ◆ 4.5×8=8만원 ◆ 9.3×8.2=14만원

치과양도

역삼역 GFC(스타타워)

18년 독점 성업중
글로벌기업 6천명 상주
실수요자만 연락바람

011-232-0000

치과임대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85-1
3층 건물, 실평수 31평
영도병원 바로 옆 건물
1층 약국, 2층 이비인후과
현재 30여년 개업중으로
은퇴로 인해 임대하려함

010-8507-0030

병·의원 전문직 대출

- ★ 신용 - 병의원금 8억이상 (3.1%~)
- ★ 병원기술평가 - 신용한도 증액
- ★ 클라우딩 펀딩 자금 진행가능 (7.3%~)
- ★ 담보 - 후순위 105%까지 (6.2%~)
- ★ 개원예정의 자금 컨설팅

DoctorNcube 김광식 이사
010-4552-1057

치과인쇄전문

각종차트일절 · 차트화일 · 문진표 · 명함
약속카드 · 봉투大小 · 쇼핑백 · 메모지
교정의료서 · 동의서 · 각종주의사항
처방전 · 소독지 · 스티커 · 리콜카드
의보서식 · 개원전단 · 카다록 · 팜플렛

대성문화사

100-281 서울 종구 인현동1가 47-1

☎(02)2273-4997**FAX. (02)2268-6438****H P. 010-6263-4997**

전국출장 · 상담환영

치의신보

1966년 12월 15일 창간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정영복 <http://www.dailydental.co.kr>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3층 치의신보

광고접수 02)2024-9290 e-mail : kdapr@naver.com

치의신보	02)2024-9200	협회 사무처	02)2024-9100
편집국	02)2024-9210	총무국	9110 재무팀 9120
구인광고	02)2024-9280	정책 1국	9130 정책 2국 9180
주소이전	02)2024-9114	사업국	9140 학술국 9150
F A X	02)468-4653	수련고시국	9155 보험국 9160
e-mail	kdapr@naver.com	홍보국	9170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등록번호서울다0718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협약
카드단말기회사 **EasyCheck**

연 20만원 절감, 아직도 교체 안하셨습니까?

치과의사만을 위한 이지체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특별한 혜택

월 관리비 (11,000원 상당) 면제, 카드 승인 시

인터넷 승인으로 전화비 절감 (건당 39원)을 통해 연 20만원 절감 효과

- ✓ 월 관리비 면제 및 인터넷 승인을 통한 전화비 절감
- ✓ 공식 최신형 단말기 및 사인패드 무상 제공
- ✓ Easyshop(매출관리프로그램) 서비스 무상 제공

문의전화 02-368-0814 <https://www.kicc.co.kr>

Densah Bur 런칭 이벤트

Densah Bur +

①LT6 Membrane(15×20mm/T=0.15mm) 10ea

②Bone Matrix I(0.15g) 30ea 중 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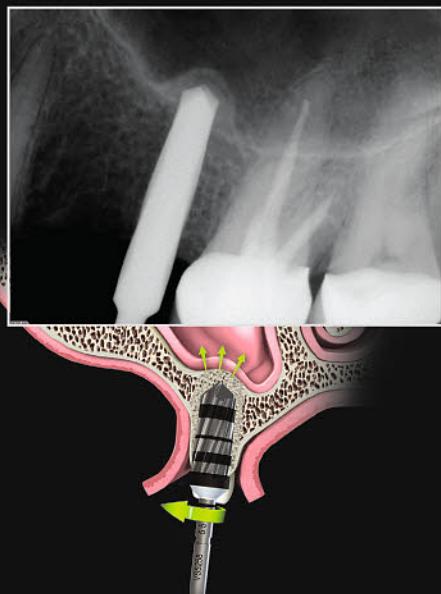
Magic을 확인하세요

런칭 이후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1월 한달간만** 고객 감사 런칭이벤트를 파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전에 없는 특별한 혜택으로 Densah Bur를 가질수 있는 기회! 꼭 잡으세요.

북미, 유럽 대세 Osseoden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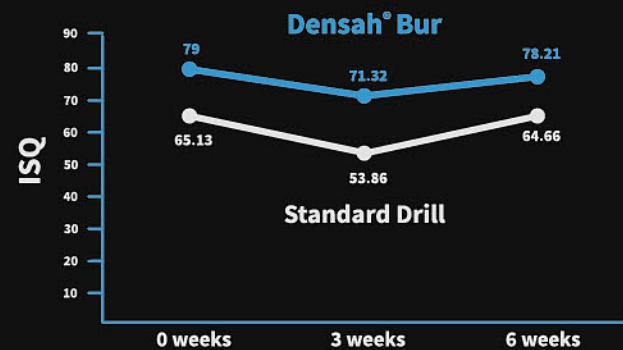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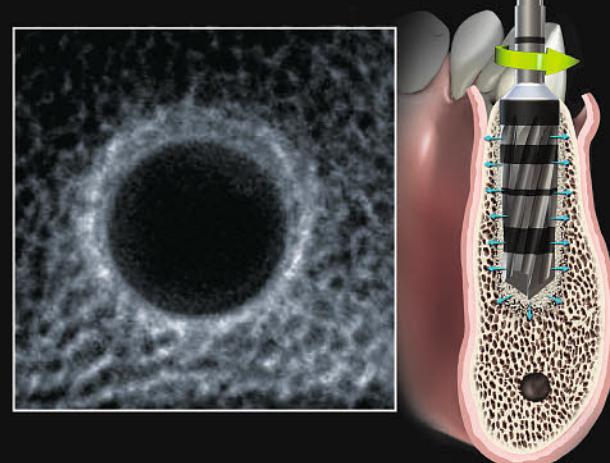
Densah® Bur
by MEGAGEN

- 단, 1개의 Kit로 모든 Implant System 대응 가능한 Magic Kit
- 자가본을 D4→D2 Bone으로 만드는 놀라운 골치밀화 효과
- 보다 빠른 Spring back 효과로 식립즉시 상상 이상의 초기 고정력과 BIC 증가
- Sinus Lift시술도 가능한 다재 다능한 만능 Kit
- Ridge splitting 없이도 3mm ridge에도 4.2mm Fixture 식립이 가능



상악 Sinus 시술의 방점을 찍다!

Bur가 Bone을 밀면서 전진함으로 membrane 손상 염려가 없으며,
자가 Bone을 이용한
Auto-grafting 효과를 얻을 수 있음



D4 Bone에서도 Immediate loading 을!

자가 Bone의 Fresh 함은 유지한 채
주변 골치밀화로 Bone Density 향상

KaVo Spray

핸드피스 수명을
오래도록!



우수한 세척 성능

풍부한 거품으로 탁월한 세정 능력



친환경적 오일

인체에 무해한 순식물성 & 생분해성 오일



경제적인 사용

1초 분사로 충분한 윤활상태 유지



카트리지 세척 가능